



[해설] 윤석헌의 금감원 대법 판결까지 난 키코 재조사 할까 03



Economy

코스피	2449.81 (-11.57)	코스닥	827.22 (-29.12)
금리 (미국 3개월)	2.31 (+0.03)	환율 (원/달러)	1076.50 (-0.70) (8일)



간간해진 감사, 돌연 '회계부정 주홍글씨'

회계의 회계

의견거절 속출

'지정감사제' 도입 앞두고 대폭 강화된 감사기준에 상장사 20개사 폐지기로

회계법인들이 감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의견 거절'이 속출하고 있다. 지정감사제 도입을 앞두고 회계법인이 '자기검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상장사 회계감사가 간간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소·벤처 기업'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의 기로에 선 상장사는 총 20개사에 이른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성지건설 등 2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에프티이앤이·파티게임즈 등 18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몰렸다. 이는 전년(16개) 대비 4개사가 증가한 수준이고, 2016년(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회계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거절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바로

(2018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관련 내용정리)

감사의견 거절	파티게임즈	성지건설	우성아이비	2016~2017년 상장폐지비율
	엠벤처투자	넥스지	수성	·감사의견 거절 : 65% ·범위제한 한정 : 0%
	디에스케이	카테아	트레이스	2016~2017년 상장유지비율
	감마뉴	지디	세화아이엠씨	·감사의견 거절 : 35% ·범위제한 한정 : 100%
	에프티이앤이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2016~2017년 이의신청-상장폐지 소요기간
한정의견 (범위제한)	한솔인터큐브	이에스에이		·평균 : 130일 ·최단기간 : 14일 ·최장기간 : 329일
감사 보고서 미제출	레이젠	모다	제이스테판	2016~2017년 이의신청-거래재개 소요기간
	마제스타			·평균 : 194일 ·최단기간 : 77일 ·최장기간 : 301일

거래가 정지된다. 일단 한정 이상의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회계 쇼크'로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한다.

최근 의견거절이 늘어난 데에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외감법의 핵심은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에 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이른바 6+3원칙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하면 3년은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오고 있는 기업

들은 2020년부터는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이에 회계법인은 지정제 시행 이후 새 감사인이 과거 감사를 문 제 삼을 경우를 우려해 감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만약 A법무법인이 적정 의견을 준 바로 다음 해 다른 법인이 한정 의견 이상을 주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국내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연결 회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와 대차대조는 필수적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계 감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 감사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도 의견거절이 많아진 이유다. 외감법이 시행되면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폐지되고 현행 5~7년인 징역기간은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각각 5년과 3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실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목인·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회계 부실의 책임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지금까지 용인되던 회계처리가 갑자기 '불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대표적이다.

바이오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임상 1상에서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임상 3상 이후부터 자산화하는 기업도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모두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았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의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인 것이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유망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취임 "금융감독 본질은 '위험관리' 행정 마무리 수단 돼선 안돼"

독립성 전면 내세워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전면 내세웠다. 금융감독이 행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해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재정립도 예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의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금융감독의 본질과 원칙을 꺼내든 것은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에 주어진 임무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세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며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숙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작용으로는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정책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범위의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정책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평화 대통령' 성공했지만... 일자리 속제는 아직

文 대통령 취임 1주년

한반도 평화정책 초석 다져 남북 긴장 완화 전기 마련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쟁기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한지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1주년 전날인 9일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일찍 일본 순방길에 오른다. 3국 정상회담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 등을 마친 후에는 이날 늦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문재인정부 1년 주요일지

2017년

- 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 6.30 한미 정상회담
- 7.6 독일 피르베저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 표명
- 8.2 8.2 부동선대책 발표
- 9.3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NSC 소집
- 9.21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제자 제안
- 11.7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정상회담
- 11.29 북한 ICBM급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NSC 소집
- 12.14 중국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

2018년

- 1.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및 공동 보도문 채택
- 2.9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방남
- 2.10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 김영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방북 초청 전서 전달
- 2.11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삼지연연혁인단 공연 함께 관람
- 2.25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과 접견
- 3.5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파견
- 3.6 대북특별사절단, 4월 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개최 발표
- 3.9 대북특별사절단,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5월 중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 발표
- 3.26 정부 개헌안 발의
- 4.1 평양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한예술단 단독공연 '뽕이 온다' 및 남한 태권도시범단 단독공연 제자 제안
- 4.27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해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보여주듯 단 하루만에 일본 순방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

무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주문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쉽 없이 달려온 1년이였다"며 "인수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

아 국무위원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과이자 극적인 반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로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을 '평화 대통령'으로 칭했다. 취임 후 계속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도 똑심있게 손을 내밀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냈고, 급기야 김 위원장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갖으면서 남북 관계의 대전환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뒤이어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평가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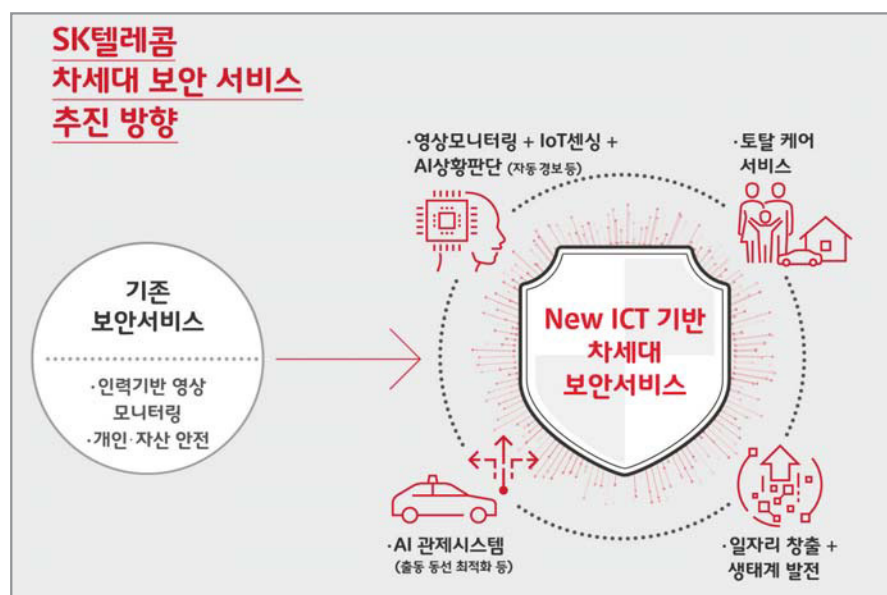
SKT, ADT캡스 인수... AI·IoT 더해 '보안 최강자'로

맥쿼리인프라와 공동인수 의결
7020억원 투자해 경영권 확보
국내 보안시장 규모 10조 달해
2021년까지 매출 1조 이상 육성

SK텔레콤이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2위 물리보안회사인 ADT캡스 지분 100%를 인수한다. 이동통신사업과 보안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강점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보안사업과 결합해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오는 2021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회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보안시장의 구도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출동보안)을 합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8일 이사회를 열어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ADT캡스 지분 100%를 1조276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7020억원을 투자해 ADT캡스 지분 55%(74만주)와 경영권을 확보한다.

양사가 인수하는 회사는 ADT캡스 주식 100%를 보유한 '사이렌홀딩스 코리아'다. 양사는 사이렌홀딩스 코리아의 기업가치를 부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2조970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ADT캡스 예비파(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11배 수준이다.

양사는 이날 매각 주체인 칼라일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분기 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ADT캡스 인수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보안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물리보안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프리도나아리서치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2년까지 연간 7% 이상 성장이 지속될 전망

이다.

SK텔레콤의 유영상 CFO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인가구와 고령가구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국내 보안서비스 보급률은 낮은 편"이며 "향후 SK텔레콤의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 IPTV 등 ICT서비스와 연계되면 수익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보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마존은 무선 보안카메라에 특화된 스타트업 블링크를 인수하기도 했다.

국내 보안시장은 에스원과 ADT캡스, KT텔레캡 등 3개 회사가 국내 시장의 95%를 차지해 3파전 양상을 보인다. SK텔레콤이 인수한 ADT캡스는 에스원에 이어 57만명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2위 물리보안 사업자다. 지난해 매출은 7217억원, 영업이익은 143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4년 보안업체 NSOK를 인수한 바 있는 SK텔레콤은 이번 ADT캡스 인수로 그간 부진했던 보안 시장에서 강인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성장성이 높은 보안 산업에 영상보안기술·AI·IoT·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고, 보안 산업을 4차 산업혁명 혁신이 본격화하는 뒷받침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AI·IoT·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보안 관리자가 육안으로 영상을 감시하며 상황을 판단했지만, 통합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급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상 징후를 AI가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 행동이 카메라나 센서에 포착되면 자동으로 보안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리 경비 인력과 차량을 배치하는 등 AI 관제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개인과 자산 안전을 위한 출동 서비스 중심 사업모델을 넘어 토털 케어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편의점 보안 관리,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장 관리 등 새로운 시설 보안 서비스도 출시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줄뉴스

▲ 대학생들이 평소 마음에는 두고 있거나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 1위로 '사랑해요'가 꼽혔다. 반면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 1위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해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발표했다.

▲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SmartFarm)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세계 최대 생활가전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8분기 연속 업계 1위를 달성했다.

▲ 현대·기아차가 올해 친환경차 판매 목표내 세운 30만대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

▲ '우선주'가 투자 측면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한국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1분기 주요 카드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3억원(42.9%) 감소했다

▲ 기업들의 신종 등급소평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신종 등급소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이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온라인쇼핑몰이 '이미지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 21명 ‘유령주식’ 알고도 매도... 檢 고발”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내부통제 미비·전산시스템 부실
삼성SDS와 수의계약 문제도

감독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직원 21명에 대해 '유령주식' 임을 알고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와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일어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상 메뉴를 잘못 선택해 현금이 아닌 주식을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 28억1000만원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됐고, 이 중 22명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면서 증시에 충격을 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제 미비로 결론내렸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었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어도 시스템 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되지 않는 상태였다.

사고대응도 미흡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었고,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있었다. 이번 배당사고와 비슷하게 위조주식이 다시 거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또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의 '유령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2명이 1208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실제 거래가 체결된 것은 16명의 501만주다.

금감원은 실제 거래 체결 여부를 떠나 주문수량이 한 주에 불과하며 바로 주문을 취소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착오주식임을 알고도 매도주문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고발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와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이번과 같은 주식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양상민 기자 smahn1@

금타, 방산업체 지정취소 요청... 더블스타 매각 속도내나

(금호타이어)

채권단, 방산부문 제3자에 분리매각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지정취소 뒤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전투기에 쓰이는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관련 규모는 연 16억원 정도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 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투기 타이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갈 경우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 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사유는 방산 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이 대부분이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방산 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양상민 기자 ysw@

대법 판결까지 난 키코... 윤석헌의 금감원, 재조사할까

<KIKO>

업계추산 940개 기업·10조 피해

키코공대위, 조사단 구성 공문
금감원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통화업 선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재조명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추산 940여 곳의 기업들이 최대 1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키코 사태를 놓고 과거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줘 묻히는 듯 했던 사건을 새 금융감독 수장이 꼬집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키코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재조사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요청 공문을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키코에 대해 "혁신위의 입장을 묻는다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매주체였던) 은행은 마치 약국이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권할 것과 같다고 본다. 약사도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면서 손님이 어떻게 되는 말든 판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기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 /키코공대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혁신위는 키코 관련 민사소송을 놓고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진 터라 판단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내부 위원들끼리의 격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시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혁신위의)보고서에 (키코)상품의 사기성에 관한 여러가지 해석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상품에)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의미"라면서 "복잡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뿐만 아니

라, 이를 판매한 은행 조차 제대로 상품을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장의 이날 취임사에는 키코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키코공대위 조봉구 위원장은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도 합동조사단 구성을 놓고 금감원 내부와 실무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면서 "관련 전문가가 많고,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도 상당한 만큼 충분한 재조사를 통해 키코사건의 진실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등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4일 재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비용 부담이 없는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지난 3일 키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책 당국이 키코 피해기업들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선 것은 꼭 10년만이다.

해외에선 법원이 피해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해당지역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피고로 제기한 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도 법원은 판결에서 2008년 당시 해당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적이며,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한국에선 2008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도산을 했는데 2013년 9월 당시 우리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리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다시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출기업들이 주로 가입한 키코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약자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심병호 상무(왼쪽) 등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 관련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금감원 무분별 정보공개 유감"

회계위반 땀 금감원에 행정소송
금융위, 17일 회계 위반여부 논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 "민감한 사안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노출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회계위반 결정이 확정되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양 측간 정면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홈페이지에 "금감원에게 조치사건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통보도 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가 (금감원 취재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감리절차와 관련해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건통지서를 전달받았다. 또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

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거나 실제 통지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 등이 확인절차 없이 금감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사건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하면서 보안을 지키라던 금감원이 정작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데 대한 유감 표명이다. 조치사건 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와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해당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이 같은 내용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 등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통

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회계분식 논란의 최대 쟁점은 회계처리가 합당한지 여부다.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이 정상적 회계처리냐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중간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논의할 감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리위 심의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분식회계로 규정한 금감원에 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정해진 감리절차에 따라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간간해진 회계처리 희생양은 '스타트업'

>> 1면 '혼돈의 회계'서 계속

또 다른 회계사는 "IFRS는 원칙회계 중심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면서 "최근 차바이오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이 회계처리가 각각의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되고 합법이 되기도 하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기존없는 회계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지난 3월 29일 안전회계법인은 삼광글라스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냈는데

이 회사는 4월 2일 거래가 재개되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3월 22일 삼성회계법인도 차바이오텍 감사의견을 한정을 냈고 이튿날 차바이오텍은 하한가로 추락했다. 이날 이후 현재까지 차바이오텍의 시총은 약 800억원이 증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이 강조되면서 간간해진 회계처리의 희생양은 재무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경제부문 가시적 성과 미흡, 갈길 멀어

>> 1면 '文 대통령 취임 1주년'서 계속

'일자리 대통령' 걸맞은 성과 없어

중국 베이징대 김동길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교수는 "지난해만 해도 한반도 전쟁위기가 돌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은 외교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공적"이라고 극찬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역학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예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한미관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도 한미관계가 오히려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83%(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다. 이는 취임한 달째였던 지난해 6월 첫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84%)보다 1%p 낮은 수치지만 임기를 5분의1 소화한 시점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세이프가드 뛰어넘은 삼성세탁기, 美시장 1위 '수성'

(1분기)

2016년부터 8분기 연속 1위 차지 라이프스타일 맞춤형이 인기 비결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세계 최대 생활가전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8분기 연속 업계 1위를 달성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세탁기는 미국에서 7분기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점유율 하락 우려를 잠재웠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미국의 주요 생활가전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 19.6%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트랙라인은 대분기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레인지 등의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2016년 2분기부터 8분기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강봉구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

(미국 주요 생활가전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트랙라인, 금액 기준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분기	연간	1분기
전체	13.8	17.3	19.2	19.5	19.6
냉장고	15.6	19.6	23.0	22.7	22.3
세탁기	15.0	18.7	19.7	20.1	20.5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에서 직원들이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주요 생활가전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심히 관찰해 현지 맞춤형 제품을 지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냉장고의 경우 패밀리허브푸드쇼케이스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호조로 2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미국 시장 주력 제품인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점유율 30.4%로 35분기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상단에 쿠팡, 하단에 오븐을 탑재한 레인지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6.9%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다. 식기세척기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세이프가드 청원을 냈던 미국 월풀 등 경쟁사에게 점유율을 뺏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삼성전자 세탁기는 미국에서 20.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1위에 올랐다. LG전자의 경우 16.0%로 2위를 차지했다.

월풀은 지난해 1분기 세탁기 점유율 17.3%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지만 올 1분기에는 15.8%의 점유율로 LG전자에 밀려난 모습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 1월

부터 드럼세탁기를 시작으로 미국 가전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고, 3월부터는 전자동 세탁기 라인을 추가해 조기에 공급 안정화를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LG전자도 지난달 26일 1분기 실적 발표에 이은 컨퍼런스콜에서 "세이프가드 비대상 모델이 있고, 해외 공장에서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세탁기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9년 초 가동 목표였던 미국 세탁기 공장을 올해 4분기에 앞당겨 가동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월풀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2.8% 감소했다"며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계기로 올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월풀이 아닌 삼성과 LG였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LG전자, 10조원 북미 LED시장 정조준

고효율·고성능 조명 솔루션 선배

LG전자가 고효율·고성능 솔루션으로 연간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북미 LED 조명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8~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매코믹플레이스에서 열리는 '2018 국제조명박람회(LFI)'에 참가해 고효율·고성능 LED 조명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북미 최대 규모 조명전시회로 600여 글로벌 조명업체들이 참가하고 관람객은 3만 명에 이른다.

LG전자는 111㎡ 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고효율·고성능 ▲편리한 설치·제어 ▲다른 업체의 제품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개방형 시스템 등 LG 스마트조명의 강점을 집중 소개한다.

LG전자가 선보인 '세이프블루 LED 트로퍼'는 주로 병원, 학교, 사무공간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 LED 조명에 비해 눈 건강에 해로운 청색광을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LG 센서 커넥트'는 다양한 센서와 통신모듈을 탑재한 스마트조명 솔루션이다. 고객이 제어시스템을 복잡하게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스마트조명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은 센서가 외부 빛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며,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



전자가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18 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해 고효율 고성능 조명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관람객들이 스마트 조명 솔루션인 'LG 센서 커넥트'가 전시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LG전자

리 시간을 예약하고 조명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LG 스마트조명은 타사 제품 및 솔루션과 쉽게 연동돼 사용이 편리하다. LG 스마트조명을 제어하는 기기들은 모두 지그비(ZigBee)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제품 및 솔루션과 연동한다. 또 기존 일반 조명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면 통신방식을 변환하는 'LG ZAT'를 이용해 LG 센서 커넥트와 연결하면 스마트조명이 된다.

업계는 북미 LED 조명시장의 규모를 연간 약 1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전자는 북미 LED 조명시장이 기존 제품단위 사업에서 에너지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솔루션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협력사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AMG 스피드웨이' 오픈

세계 최초 AMG 브랜드 적용 트랙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를 적용한 'AMG 스피드웨이'를 국내에 오픈했다.

벤츠코리아는 8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AMG 스피드웨이 개장 행사를 열었다. AMG 스피드웨이는 벤츠 코리아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제휴·협력해 기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탈바꿈한 공간이다.

토비아스 피셔 메르세데스-AMG 회

장은 "한국은 놀라운 성장세로 메르세데스-AMG 성장에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고성능 차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메르세데스-AMG의 모터스포츠 DNA를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적용 트랙을 한국에서 오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AMG 스피드웨이를 통해 한국 고객들이 스포츠카 및 퍼포먼스 브랜드로서 메르세데스-AMG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다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 첨단제품으로 中 수주 1兆 뚫는다

현대모비스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 등의 이유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시장에서 올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전동식 조향장치(MDPS), 헤드램프 등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 규모보다 50% 가까이 성장한 4억2300만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에서 2015년 1억4800만 달러, 2016년 1억5100만 달러, 2017년 2억8900만 달러를 수주한 데 이어 올해는 10억7000만 달러(약 1조원)의 수주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4배 가량 많은 규모다.

현대모비스가 사드 사태에 따른 부진을 딛고 올해 중국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현대모비스 천진공장.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은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이 발판이 됐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HUD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센서 등 미래형 자동차 첨단 부품들까지 수주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수주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중국 5대 로컬 완성차 메이커 중 한 곳에 2억 달러 규모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음향 장비는 글로벌 전문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다른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 한 곳과 3500만 달러 규모의 HUD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수주한 HUD는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집중 육성하기로 한 분야 중 하나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수주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해외 완성차 메이커 세계 수주 70억 달러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 2022년에는 해외 수주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품사업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현대·기아차 외의 완성차 업체에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나들이 시즌 추억남기기엔 '카메라'가 제격

체험프로그램·선물 증정 등 카메라업계 고객맞이 한창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광객은 나들이객으로 붐빈다. 카메라는 추억을 남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 나들이 필수품이다. 이에 맞춰 카메라 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에버랜드 내 포시즌스 가든에서 오는 13일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니콘 브랜드 존을 운영한다.

놀이공원을 찾은 소비자는 제품 전시·체험존, 포토존, 이벤트존을 통해 카메라와 쌍안경 등 각종 니콘 카메라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해볼 수 있다.

포토존에서는 SNS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콤팩트 카메라 쿨픽스 A900을 증정한다. 촬영 이벤트



니콘 브랜드 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넘치는 에버랜드 볼꽃 축제 모습. /니콘이미징코리아

존에서는 간단한 피사체 촬영 미션을 마려해 콤팩트 카메라 쿨픽스 W100, 니콘 양말, 니콘 보틀 등 푸짐한 선물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영업마케팅 정해환 본부장은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니콘 브랜드 존을 방문해 카메라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며 봄날의 풍성한 추억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내달 7일까지 APS-C

타입 미러리스 카메라 a5100과 a6000에 대한 정품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a5100 또는 a6000을 구매하고, 6월 10일까지 소니코리아 고객지원 사이트에서 정품 등록 및 사은품 신청을 마치는 모든 고객에게 콤팩트 블루투스 스피커 SRS-XB10, 전용 배터리 NP-FW50 등 소니만의 특별한 봄 선물을 증정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美 찍고 중동 접수...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가속 페달

올해 판매목표인 30만대 '청신호' 1Q 전기차 판매량 전년 비 50% ↑ 이스라엘 '베스트셀링카' 선정

현대·기아차가 올해 친환경차 판매 목표로 내세운 30만대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차 판매 연간 20만대를 돌파한 현대·기아차가 올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의 수요증가로 연간 30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은 것. 실제 현대·기아차의 올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하며 '친환경차'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9년 친환경차 판매가 50만대에 달하는 등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요가 기존 내연기관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새로 출시한 전기차를 세계 시장에 집중 소개해 올해를 실질적인 전기차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하이브리드차량(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전기차(EV),



현대자동차 소형 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수소연료전지차량(FCEV) 등 친환경차 판매 목표를 30만대로 설정했다.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연간 판매량은 2009년 6231대, 2012년 6만4720대로 급성장하더니 2016년 12만8976대에서 2017년 25만6258대로 판매가 확대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여기서 고삐를 더 당겨 지난해 대비 4만대 이상을 확대해 30만대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판매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경우 대표 친환경차인 아이오닉이 수출길에 오른 후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올해 1분기 이스라엘에서 작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난 총 4149대가 팔려 전체

모델 중 판매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출시된 해의 시장에 진출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개별 국가에서 베스트셀링 모델로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시장에서 내연기관차가 아닌 친환경차가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한 것은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PHEV 포함)는 지난해 내수에서 4467대가 팔렸고 4만8239대가 수출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큰 미국에서 9937대가 팔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의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해외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차를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는 친환경차 모델 '니로'로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로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연 10만대 판매를 넘어섰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고른 인기를 얻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현대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전기차에 큰 기대를 걸

고 있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3월 출시된 1만8076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니로를 중심으로 내수시장 공략에 나선다.

여기에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출고가 시작된 넥쏘는 총 62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예약판매를 진행해 총 1061대가 예약돼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올해 현대·기아차는 순수 전기차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차 '니로 EV(7월 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코나 일렉트릭을 미국에 출시할 방침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한번 충전 시 최대 470km, 니로 EV는 최대 380km 달릴 수 있는 본격적인 장거리 전기차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각국의 연비 규제와 보조금 정책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판매 성장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드론, 전국 7개 공역서 '훨훨'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LG유플러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진단 및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공역에서 비가시권,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추진된 실증사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중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농작물 모니터링 기반의 농약살포 분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부가 지정한 공역인 강원 영월, 대구 달성, 전남 고흥, 전북 전주, 경남 고성, 부산 영도, 충북 보은 등 전국 7곳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드론관리시스템과 파트너사의 드론기체와 연동해



LG유플러스 무인비행장치.

/LG유플러스

총 3개의 사업분야에 필요한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이와이시스템과는 시설물 안전진단 차원에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감시한다. 한화정밀기계, 샘코, 제이와이시스템, 프리뉴 등 4개 파트너사는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분야에서 미아, 실종자, 범죄자 등을 찾기 위한 실시간 영상전송과 시설물 점검을 위한 클라우드 영상 저장 기

술을 테스트한다.

또 LG유플러스가 신규 사업분야로 신청한 농작물 모니터링 기반의 농약살포 분야는 한국농업기술지주와 한화정밀기계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관제시스템 추가 기능, 기체 안전 솔루션 기술검증, 3D 맵 작성, LTE전파특성 연구 등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한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민 기자



제주항공 실적 고공행진... 사상최대 영업익

영업익 464억원·15분기 연속 흑자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 매출 3086억원, 영업이익 464억원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15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다.

제주항공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공시했다. 1분기 매출은 308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5% 늘었고, 영업이익은 464억원으로 70.6%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5.0%로 집계됐다. 1분기에 납부한 법인세 113억원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6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7.1% 늘었다.

제주항공 1분기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 매출 규모는 역대 최대 매출이었던 작년 3분기 2666억원보다도 420억원 많은 실적이다. 1분기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분기 기준으로 2014년 3분기부터 15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썼다.

제주항공은 공격적인 기단 확대와 유연한 노선 운용 등을 실적 상승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1대, 올해 1분기 2대 등 항공기를 새로 도입하며 현재 총 34대의 기단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39대로 기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1분기 일본·동남아 등 내국인 인기 노선에 항공기를 추가 투입하고, 항공기 동틀을 향상한 것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정비비, 리스료 등 고정비를 줄이고 다양한 부가사업을 시도한 것도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꼽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 계획된 항공기를 차질 없이 도입해 고정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우리동네 백반 맛집 어디" 네이버 '온라인 백반위크'

네이버는 전국 곳곳의 숨겨진 밥집을 소개하는 '네이버 백반위크'가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맞춰 네이버 모바일 우리동네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백반위크'를 열고, 전국 300여개의 밥집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백반위크의 주인공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우리동네 밥집이다. '5천원 백반', '대학가 단골 밥집', '우리동네 시장 밥집' 등 총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이용자의 후기와 더불어 밥집의 대표 메뉴, 장소, 가격 등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밥집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2514@

귀뚜라미 건조성능 높은 '농산물 건조기' 출시

귀뚜라미는 건조성능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 '귀뚜라미 2018년형 농산물 건조기'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조용량이 85kg 또는 175kg인 2018년형 귀뚜라미 농산물 건조기는 고효율·저소음 팬모터로 건조 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커진 특수강화 플라스틱 채반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2종에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단열재와 고장력 마그네틱으로 구성된 이중 기밀장치가 적용됐다. 이 장치는 건조기의 밀폐력을 높여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을 최소화해 소비자의 전력비 부담을 줄여준다.



또 농산물 건조기 내부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 벌레나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고, 자동 배수 조절기를 내장해 습기 배출을 자동화함으로써 최상의 건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건조용량 기준 85kg이 220만원, 175kg이 350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귀뚜라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수수료 인하에 가라앉는 카드사... “원가 재산정 필요”

당기순익 전년비 42.9% 감소
소상공인 지원 강화도 한 몫
하반기 인하에도 어려움 호소

1분기 주요 카드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하반기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고되어 있어 올해 카드사 순익은 전년 대비 급감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3억원(42.9%) 감소했다.

우리카드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34.1% 늘어난 순익을 기록했고 나머지 4개사는 모두 줄었다.

신한카드는 1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4018억원 대비 65.4% 급감했고 하나카드는 50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역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억원(13.9%), 15억원(1.3%) 줄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1분기 주요 카드사 당기 순이익〉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증감	증감률
신한카드	1391억원	4018억원	-2627억원	-65.4%
삼성카드	1115억원	1130억원	-15억원	-1.3%
국민카드	717억원	833억원	-116억원	-13.9%
우리카드	393억원	293억원	100억원	34.1%
하나카드	255억원	500억원	-245억원	-49.0%
합계	3871억원	6774억원	-2903억원	-42.9%

2013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순이익이 감소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로 카드사 실적 급감
다만 분기별 일회성 요인을 감안할 경우 카드사 실적은 크게 달라진다고

신한카드는 지난해 1분기 회계기준 변경으로 대손충당금 2758억원(세후)이 환입되어 실적이 급증했다. 당시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올 1분기 순익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1분기 채권 매각이

의 307억원을 순이익에 포함했다. 올 1분기 이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됐다.

우리카드는 올 1분기 있었던 배드뱅크 배당이익 1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실적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영세 가맹점은 카

드 수수료율이 0.8%,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낮은 수수료율을 받는 가맹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당시 영세·중소 가맹점의 기준 확대를 추진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3500억원 가량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시행된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역시 올 1분기 카드사의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카드로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된다”고 말했다.

◆‘보릿고개’ 하반기...수수료 감소폭 확대 전망

문제는 올 하반기다. 카드사들은 하반기 닥쳐올 또 한 번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오는 7월부터 슈퍼, 제과점, 편의점 등 소매 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가 평균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연말에는 카드 수수료의

원가 재산정 작업이 추진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3년 주기로 조달금리,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담당한다. 적격비용의 하락은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된다. 지난 2015년 적격비용 재산정 당시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협의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린 상황. 오는 10월쯤 적격비용을 제출하고 12월쯤 심사한 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최근 들어 거의 반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적격비용 산출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춘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단독 판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9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의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공동적립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이 상품을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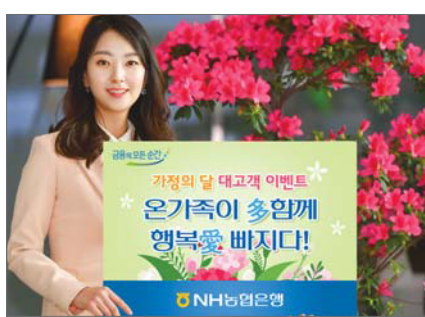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돼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품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가정의 달 대고객 이벤트

NH농협은행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가정의 달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오~오~(555명 추천) 온가족이 다(多)함께 행복애(愛) 빠지다!’를 주제로 농협은행에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이 행사기간 중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상품(예·적금/펀드/신탁 중 1개 이상, 주택청약저축 포함)에 신규가입한 경우 세대주 고객 이름으로 자동 응모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55명에게 백화점상품권(50만원), 홍삼정(240g), 외식상품권(5만원), 모바일주유권(3만원) 등 경품을 제공한다. 6월 셋째 주 중에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h수협은행 주택건설 지원 상품 출시

Sh수협은행은 8일 소규모 주택건설 전용 신상품 ‘Sh안전협약 주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Sh수협은행은 이에 앞선 지난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Sh 안전협약 주택보증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울·경기·광역시시를 포함한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신화 기자

VAN사 순익 1797억... 전년보다 10% ↑

(부가통신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익 늘어
중계수수료 수익은 1.3% 감소

지난해 부가통신업자(밴·VAN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개 밴사의 순이익은 1797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익이 늘었다.

등록된 밴사는 24개지만 이들 13개 밴사가 전체 밴사업 수익 중 99.4%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6.8% 늘어난 2조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밴상품과 기타사업에서 수익이 주로 늘었다.

다만 주요 수익원인 중계수수료 수익은 1조1508억원으로 거래건수 증가에도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1조9011억원으로 단말기 교체 관련비용과 모집인수수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재무상황은 양호하지만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다.

〈VAN사 순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률
영업수익	19,911	21,344	1,353	6.8
VAN사업 (상품, 중계 등)	14,028	14,073	45	0.3
기타사업 (PG 등)	5,963	7,271	1,308	21.9
영업비용	17,706	19,011	1,305	7.4
상품	1,875	2,544	669	35.7
모집인수수료	6,083	6,309	226	3.7
가맹점관리 등	425	311	△114	△26.9
영업이익	2,285	2,333	48	2.1
당기순이익	1,638	1,797	159	9.7

자산은 1조9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대리점에 대한 가맹점 모집 관련 프로모션이 줄면서 현금성 자산이 다소 늘었다. 다만 자산 증가율은 5.9%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낮아졌다.

부채는 6799억원으로 부동산 구입 관련 장기차입금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4.2% 증가했다. 자본은 전년 말 대비 6.8% 늘어난 1조3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거래건과 가맹점, 단말기수는 모

두 늘었다. 카드 거래건수는 159억 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가맹점수는 245만 개, 단말기수는 304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4.3%, 4.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환경 변화에 따른 밴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밴 영업비용 체계를 개편해 밴 수수료 합리성 제고 및 결제시장 참여자 간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SC제일은행 마이썸통장 신규가입 ‘연1.7%’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출금통장 ‘SC제일마이썸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최대 3개월 동안 최고 연 1.7%(이하 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이썸통장은 고객이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유지 가능한 금액을 직접 설정하고, 설정 금액만큼 잔액을 유지하면 연 1.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벤트 기간 내 마이썸통장을 개설하고 설정 금액만큼 잔액을 유지하는 고객은 0.2%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더해져 연 1.7%의 특별금리를 받게 된다.

5월 가입 고객은 7월 말까지, 6월 가입

고객은 8월 말까지 특별금리를 받는다. 이번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연 1.7%의 금리는 CMA, 인터넷은행의 고금리 입출금통장 등과 비교해도 금융권 최고 수준이라고 SC제일은행 측은 전했다.

마이썸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정기예금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금리가 결정된다. 고객은 설정 금액을 월 단위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말에 선보인 마이썸통장은 ‘파킹통장’으로 주목 받으면서 출시 1개월 만에 예금 잔액이 1조원, 출시 4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



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금리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다 새로운 자금 용도가 생기면 언제든지 인출을 원하는 고객이나, 현재 여유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번 마이썸통장 특별금리 이벤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선물 NH농협카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증권 다이제스트

미래에셋대우

ELS 9종 1050억 규모 판매

미래에셋대우는 8일 연 5.0%에서 연 8.0%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구조의 지수형 ELS 7종과 해외주식형 글로벌 ELS 2종 등 총 9종을 약 10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아마존-넷플릭스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초고위험)'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월수익지급 평가일 기초자산의 증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매월 1.0%(총 6회,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만기일에 원금 100%를 지급한다.

'아마존-엔비디아 손실제한 조기상환형 해외주식 글로벌 ELS(중위험)'는 만기 1년 상품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102% 이상이면 연 11.30%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토스 해외주식 행복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토스(TOSS) 해외주식 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토스 앱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스타벅스, 애플, 알파벳(구글),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의 주식을 추천으로 제공한다.

또한 5월 17일 부터 5월 24일까지 '토스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고객 선착순 333명에게 5달러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토스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의 토스 앱을 이용해서 미국 유망 주식 20종목을 환전 등의 별도 절차없이 바로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연 6.3% ELS 등 10종 공모

KB증권은 11일 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 HSCEI, S&P500)으로 연 6.3%(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518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8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514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탭다운형)는 S&P500지수와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타크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4%(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오너가 지배' GS건설 지주사 편입 '과제'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⑥ GS

집단경영체제로 승계작업은 아직 지주사 체제 속한 계열사 58%뿐 GS칼텍스 정유 의존도 높아 고민

"글로벌 시장은 이미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허창수 GS그룹 회장 신년사) 그는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18년은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를 내리며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이 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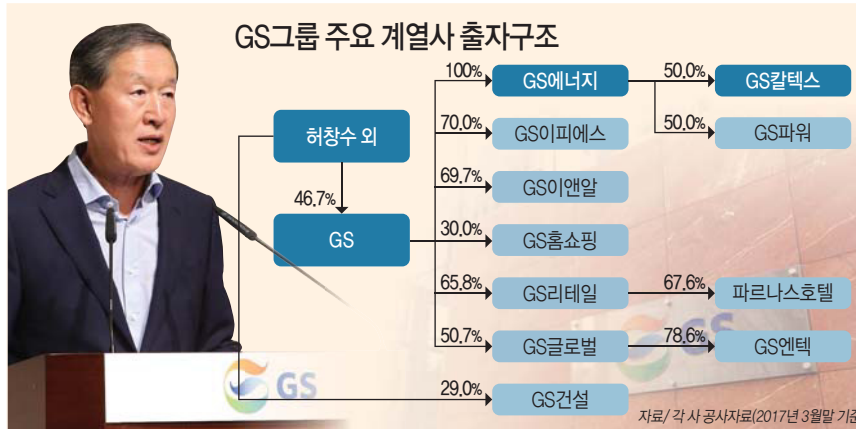
GS는 계열사 경영진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와 2차전지 소재 등 혁신 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유통과 건설을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큰 잡음은 없다.

◆GS, 집단 경영체제 2006년 LG그룹에서 분가한 GS. 10대 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GS그룹은 집단 경영체제 방식을 갖고 있다.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GS그룹과 그 아래 허남각 회장의 삼양통상, 허용수 회장의 승산그룹 등이 GS그룹에 편입돼 있다. 이들 3개 그룹은 독립경영을 하면서도 GS그룹이란 큰 우산 아래 속해 있다.

허경수 회장이 지휘하는 코스모그룹은 GS에서 계열분리했다. 제계는 허 회장이 GS그룹 계열이라는 장점보다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모그룹을 제외한 GS그룹은 3명의 오너가 4세들이 경영전면에 나서고 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 허



윤홍 GS건설 전무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이자 최대주주인 허준홍 GS칼텍스 전무가 주인공들이다. '홍'자 돌림 형제 중 가장 먼저 이사 직함을 단 허윤홍 전무는 고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의 장손이며, 허준홍 전무는 허만정-허정구-허남각으로 이어지는 GS그룹의 직계 장손이다.

허윤홍 상무는 0.53%(이하 2017년 사업 보고서 기준)의 GS 지분을 보유하는 등 자산 승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버지인 허창수 회장이 GS(4.75%), GS건설(11.02%)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갈길이 멀다. 오히려 허준홍 씨의 행보가 눈에 띈다. 그는 GS 보유지분을 1.86%까지 늘린 상태다. 또 최근 삼양통상 지분을 21.25%로 늘려 최대주주가 됐다.

GS그룹 오너가 4세 중 가장 먼저 경영전면에 나선 허세홍 GS글로벌 사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GS지분 1.43%를 보유하고 있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장남인 허서홍 상무(GS에너지 전력·집단에너지 사업부부장)도 GS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GS 보유 지분을 1.24%까지 늘렸다.

오너리스크나 경영권 분쟁은 머나먼 일이라 게 재계의 평가다.

제계 관련계는 "GS칼텍스 등 GS그룹의 실적이 탄탄해 경영이 안정돼 있

다"면서 "허 회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3세들의 경영능력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아 경영권 승계를 아직 논할 단계도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GS그룹의 전체 계열사는 69개. 이 가운데 지주사 체제에 속한 계열사는 40개로 58%에 불과하다. 국내 대기업 평균치(73.3%)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지주사 체제 바깥에 있는 계열사 29곳 중 1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일정 수준(비상장사는 20%, 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는 규제 대상이다. 문제는 GS칼텍스와 거래량이 많은 GS아이티엠이나 GS네오텍 같은 계열사들이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GS건설(GS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 GS건설은 GS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이지만 지주사 ㈜GS의 지배는 받지 않고 허창수 GS그룹 회장(10.78%), 허진수 GS칼텍스 회장(5.46%), 허정수 GS네오텍 회장(4.18%), 허명수 GS건설 부회장(3.41%),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2.13%) 등 허씨 일가가 지배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GS가 문제 해결을 위해 GS건설을 몰해 지주사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LG그룹도 그랬다. L

GS상사는 ㈜LG 지배 밖이었지만 지난해 말 구분무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을 사들이며 지주사의 품에 안겼다.

◆그룹 핵심은 GS칼텍스... 경영권 행사는 제한적

2004년 7월 LG의 인적분할로 GS홀딩스가 설립된다. LG그룹과의 분할작업이 본격화된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출범했다. 고(故) 허만정 회장 일가의 지분이 근간이었다.

이후 GS그룹은 물적분할 등을 통해 정유, 화학, 유통, 발전, 건설 및 레저업 등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GS칼텍스의 정유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허 회장의 고민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열린 '2018년 2분기 GS 임원모임'에서 "임원들이 '제2의 창업'을 한다'는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적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이면을 읽어내는 안목을 키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허 회장은 "새로운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GS그룹은 출범 때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투명한 지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윤리경영'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실천해 오고 있다"면서 "그간 우리 활동이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보완할 점이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엑스레이 장비 전문... 매출 70% 해외서

IPO 기자간담회
제노레이, 이달 중 코스닥 상장
지속 수익창출·사업 안정성 확보



박병욱 제노레이 대표이사, /제노레이

메디칼엑스레이(X-ray) 진단장비 전문기업 '제노레이'가 5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개발비 자산화가 흥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노레이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9일부터 수요예측을 거쳐 16~17일 청약을 실시하고 28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제노레이는 치료용·치과용 디지털 영상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제노레이는 메디칼 사업으로 수술 환경에서 사용되는 시암(C-arm)과 유방암 진단 시 활용되는 맘모그래피(Mammography) 두 장비의 생산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영상장비는 영리가 우선시되는 분야로 가격 민감도가 높고,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크다. 반면 메디칼은 공익 목적이 강해 가격 민감도가 낮고, 장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제노레이는 메디칼을 통한 꾸준한 수익창출과 텐탈장비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제노레이는 설립 이후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445억원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1%, 60.3% 증가한 62억원, 5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텐탈 부문 매출액은 2015년부터 연 평균 29.4%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노레이는 전체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오는 만큼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노레이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 7500원~2만 5000원으로 총 60만 1942주를 공모한다. 이 중 신주모집은 45만 5418주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메리츠증권증권

신규 비대면계좌 금리 2.99%

메리츠증권증권은 오는 7월 말까지 비대면계좌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담보대출 금리를 2.99%로 낮추고, 주식 매매수수료를 면제하는 비대면고객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증권의 현행 신용·담보대출이자율이 이용 기간에 따라 평균 7.5%~9.9%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인 일명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 4.52% 보다도 낮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비대면앱(애플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메리츠증권증권 메리츠계좌개설'을 통해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서 신용/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파격적인 2.99% 할인 금리는 이벤트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적용된다. 금리 이벤트는 대출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무료 수수료 혜택은 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벤트 대상계좌에서 HTS/MTS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 등 제비용을 제외한 매매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김문호 기자

북핵 등 성과 값아먹는 일자리... 경제속도 조절론 대두

文 대통령 취임 1주년

일자리 위원회·상황판 설치에도 3월 청년실업률 11.6% 악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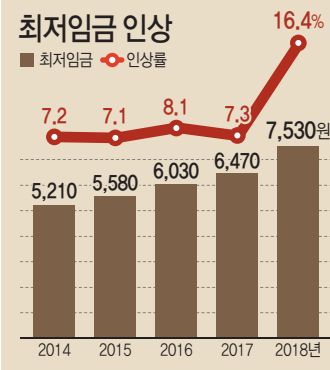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취임 당시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지표 등이 뜻대로 살아 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도 취임 초반부터 곳곳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급등한 가운데 또 다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년간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으로의 데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든 것도 이유이다.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3대 기본원칙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지난해 취임 당일 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보름 후에는 자신의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

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예산·세제·정책금융·조달·인허가 우대 ▲정부·공공기관 업무평가시 일자리배점 강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이 두루 담겼다.

지난 3월에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대책'도 별도로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들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자리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들어서도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각각 들른 것 역시 일자리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전체 실업률은 4.6%, 4.5%를 각각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의 4.9%(2월), 4.1%(3월)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8.7%(1월)→9.8%(2월)→11.6%(3월)를 기록하며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도 줄곧 9%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체 실업률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물론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직업을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어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들 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으면 취업자도,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거나 또 반대

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최근에 경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며 "올해 1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시화되면서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에도 19조2312억원을 편성해 놓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문제 만큼은 가뜰이나 갈길이 급한데 쉽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원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 수요를 확대 하되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北·日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에 중요”

北, 평양-인천-제3국 국제항로 개설 추진

文 대통령, 日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진정으로 통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상처입은 피해자 용서·화해 필요”

9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으로 6년 반만에 일본을 찾는 문 대통령은 한국과 한반도, 동북아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현지에서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지 유력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1874년 창간한 요미우리 신문은 아시아, 마이니치와 함께 일본 3대 신문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기준 조간 부수는 약 878만 부에 달한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불행한 역사로 고통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서면인터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는 과거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면서 “공동선언에선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고, 오늘날에도 이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채널 활성화 ▲인적교류 증진 ▲경제협력 강화를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꼽았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베 총리

가 과거 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일본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요청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에 꾸준히 제기했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일 간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오랜 세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대화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까지 다양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이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승호 기자

국제민항기구에 제안

북한이 우리 측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 항로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북측이 ICAO에 제기한 항로 개설 문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FIR는 비행정보 업무 및 조난 항공기에 대한 경보 업무를 제공키 위해 ICAO가 가맹국에 할당하는 공역으로 국가별 영토와 항행 지원 능력을 고려해 각국에 할당된다. /연철뉴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ICAO에 평양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개설을 요청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철뉴스

북한이 남북한 FIR를 잇는 제3국 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국면이 전환돼 북한과 제3국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제3국을 오가는 최단거리 항로를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철뉴스

여야, 국회 정상화 공회전... 비공개 협상 진행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포함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결렬 선언’을 하지는 않고 이날 중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됐느냐”는 물음엔 “추가로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연철뉴스

일단 각 당 수석원내대표들이 만나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한 뒤 논의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따로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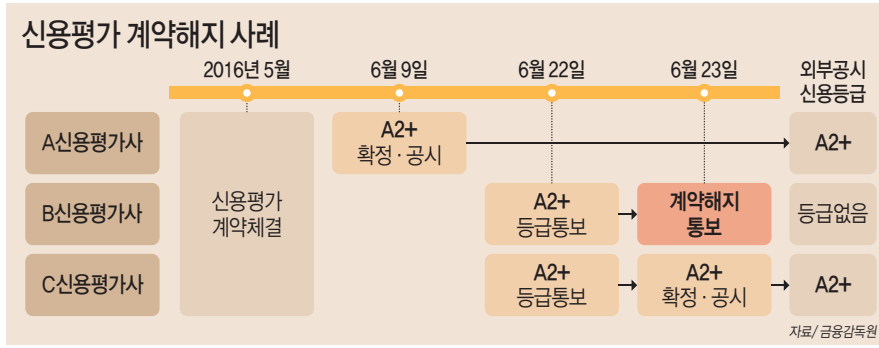
정세균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날을 20대 전반기 국회 시한으로 거듭 규정하며 여야의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비공개회동에서도 조속한 협상 타결은 물론 협상 불발 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정의장은 오늘 중으로 타결이 안 되면 5월 국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서로의 양보를 촉구했고, 국민의 참정권 훼손 문제 등이 있으니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라도 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연철뉴스

기업 신용등급 쇼핑 차단... 등급 통보 후 철회 제동

증권신고서에 체결·철회 기재
공시 내역 등은 정기 제출해야
신유형 등급쇼핑 여부도 점검



기업들의 신용 등급쇼핑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여러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불리한 평가를 내린 곳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신용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급쇼핑이란 기업이 여러 곳의 신용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용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규상 평가계약 체결 전에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등급쇼핑은 금지돼 있지만 신용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후에 계약 해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한 기업은 신용사 A, B, C 세 곳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A와 C사가 A2+ 신용등급을 부여하자 기업은 결과를 수용했고, 등급이 확정·공시됐다. 그러나 A2 신용등급을 내놓은 B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계약해지 우려 등으로 독립되고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시켜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형태의 등급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며,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실장은 "신용평가 계약 취소·철회, 평가등급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새로운 유형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아우디A6.

아우디, 수입차 시장 단숨에 '3위' 진입

'디젤 게이트' 이후 2년 동안 국내 판매에 나선 아우디코리아가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지난 4월에 단숨에 국내 수입차 시장 3위를 차지했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2만51대)보다 29.3% 증가한 2만5923대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대수는 9만3328대로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했다. 브랜드별로는 2165대를 판매한 아우디코리아가 3위로 업계 복귀를 알렸다. 아우디의 화려한 컴백으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선두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로, 7349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2위는 BMW코리아가 6573대를 판매했다. 이어 아우디코리아를 비롯해 한국도요타

(1709대), 포드(1054대), 랜드로버(911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우디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중형 세단 A6 35 TDI는 지난 한 달간 1405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로 꼽혔다. BMW코리아가 판매 중인 520d(1357대)와 벤츠코리아의 E 200(1257대)의 경우 각각 베스트셀링카 2, 3위에 올랐다. 한국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는 766대가 팔리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연료별로 보면 디젤(경유) 50.0%(1만2955대), 가솔린 41.5%(1만758대), 하이브리드 8.3%(2160대) 순으로 집계됐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브랜드별로 물량 부족 및 신차 대기 수요 등이 있었다"며 "수입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계륵이던 '우선주', 재평가에 투자매력 부각

한국기업 투명성 높아져 재평가
보통주보다 39.76% 주가 낮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현황)

(단위: %, %p, 십억)

순위	종목	과리율	과리율	증감률	시가총액		비중
					우선주	보통주	
1	삼성전자우	19.81	19.60	0.21	38,404	340,224	11.29
2	현대차2우B	31.25	32.45	-1.20	4,138	35,244	11.74
3	현대차우	37.56	37.15	0.41	2,508	35,244	7.12
4	아모레퍼시픽우	49.22	32.82	16.40	1,885	20,548	9.17
5	LG생활건강우	44.17	36.59	7.58	1,629	21,709	7.51
6	LG화학우	41.30	33.27	8.03	1,530	23,931	6.39
7	LG전자우	59.36	57.53	1.83	709	16,610	4.27
8	삼성화재우	31.46	33.27	-1.81	584	12,649	4.62
9	한화3우B	57.11	56.80	0.31	380	2,953	12.86
10	S-에우	14.18	18.00	-3.82	380	12,384	3.07

'사자나 찢째하지만 배당을 보면 구미가 당긴다'.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각이다. 그저 그런 주식으로 여겨졌던 '우선주'가 투자 측면에서도 재조명 받고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한국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피 상장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주가 차이도 최근 1년간 더 벌어졌다.

8일 한국거래소가 우선주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78개사의 지난 2일 현재 주가를 분석한 결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평균 39.76% 주가가 낮았다. 1년 전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괴리율(37.84%)보다 1.92%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주요 우선주 종목별로 괴리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19.81%로 1년 전의 19.60%보다 0.21%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우(32.82%→49.22%)나 LG화학우(33.27%→41.30%)

도 괴리율이 확대됐다. 반면 S-Oil우(18.00%→14.18%), 삼성화재우(33.27%→31.46%), 현대차2우B(32.45%→31.25%) 등은 괴리율이 축소됐다. 지난 2일 현재 괴리율이 가장 큰 우선주는 남양유업우(68.44%)였고 금호석유우(66.45%), 대림산업우(60.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선주 할인의 근본적 이유는 의결권 가치이다. 기업 투명성이 높을수록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은 축소되는 반면 소

액주주의 이익훼손이 줄어들어 주주 간에 누릴 수 있는 기업가치의 차이가 없어진다. 배당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수익률이 높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액면가의 1% 높은 배당금을 받고, 주가도 평균 40~50% 할인 받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연도별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수익률 추이를 보면 우선주는 평균 1.5%~2%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했다. /김문호기자 kmh@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 휘발유·경유도 오름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8일 국제유가 상승세에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초대형 IB 출현으로 단기 금리 상승 전망"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른바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출현으로 단기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7년 단기금융시장 리뷰'에 따르면 초대형 IB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단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대형 IB는 자본금 3조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증권사 가운데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인 헤지펀드에 대한 증권대여와 자금 지원, 기업 신용공여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6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허용되는 신규자금조달 수단을 차별화하는데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본금 4조원 이상이어서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도 허용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한은은 국내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초대형 IB의 발행 어려움을 통한 자금 조달은 단기금융시장의 수급과 금리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가운데 단기금융업무로 최초로 발행된 한국투자증권 어음의 금리는 2.3%로 금융권 기대금리(1% 후반)를 상회했다. 한은은 다만 "이들 사업자가 발행 어려움을 통한 자금 조달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당분간 단기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대형 IB들이 스타트업, 고수익채권, 4차 산업 업종 등 신생기업, 차세대 성장 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만큼 제도가 정착하면 생산적 자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사업 확장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고자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향후 초대형 IB들

의 투자 행태와 리스크, 중소형 증권사의 경영 상황, 단기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풀,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국내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277조원으로 전년 250조원 대비 11.0%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4.6%보다 낮았지만 2014년 8.6%, 2015년 2.6% 보다는 높았다.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은 61조5000억원으로 18.5% 늘며 단기금융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헤지펀드, 채권형 펀드 등이 레버리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이 주로 1년 이내 자금을 조달하고자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 시장도 43조1000억원으로 24.9% 늘었다. 기업어음(CP) 시장은 151조2000억원으로 7.3% 늘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동서발전, 평양 인구 2배 쓸 '평화발전소' 구상

남북경협 이후 기대감 '술술'
연천·DMZ 등에 LNG 복합화력
새 화력발전소 건설 장기 목표도
정부 "협의하거나 검토한적 없어"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한 발전회사가 대북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이 먼저 해결돼야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사는 전력이 부족한 북한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인 진출방안을 마련했다.

8일 한국동서발전이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에 제출한 '발전분야 대북 협력 사업안'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북한에 단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서발전은 태양광과 풍력의 사업준비 기간이 3년 정도로 화력발전(6~8년)보다 짧아 당장 급한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23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 북한 주민 7만5000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기로는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이나 비무장지대에 '평화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발전소는 북한의 산업시설 전력 공



동서발전 소속 울산 LNG복합화력 발전소. /뉴스

급용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MW급 복합화력발전 방식으로 구상됐다.

동서발전은 평화발전소가 평양 인구 260만명의 2배 인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로는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후보지로는 개성공단과 해주공업 단지에 인접한 해주, 원산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인근에 있는 원산, 광공업과 수산업 등이 발달한 김책 등 3곳을 검토했다. 300MW급 2기 또는 500MW급 2기를 건설해 북한 발전소 설비용량의 8%에 해당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66만 kW로 남한의 14분의 1 수준이며 실제 생산한 전력량은 239억kWh로 남한의 23분의 1에 불과했다.

동서발전은 북한의 오래된 화력발전소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화력발전소 총 9기 중 8기가 30년 이상 됐고 설비용량은 2013년 기준 31.6%로 저조하다.

성능개선은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과 시간이 덜 들어 단기간에 북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명이 남은 오래된 발전소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다.

활용도가 낮아진 울산 1복합발전소를 북

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신규복합발전소를 대신 짓는다는 구상이다.

동서발전은 발전소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 교육시설에서 북한 엔지니어를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동서발전은 국내탄과 품질이 유사한 북한 무연탄을 강원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동해화력은 2007~2010년 북한 무연탄 13만8000t을 도입한 적이 있다.

동서발전은 북한 무연탄이 국제시세보다 저렴해 도입시 연료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고 무연탄을 받는 거래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서발전의 이 같은 대북사업안은 정부와 협의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소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너무 앞서나간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에 발전소 건설을 검토한 바 없으며 동북발전 사업안을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저런 구상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화할 수 있는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아직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평화발전소 건설안은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韓·中·日 비즈니스 서밋 3國 기업인 5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케이단렌) 주최로 열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국내 기업인 15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 기업인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조성진 LG 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급 경영진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너경영인 중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LS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권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2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을 주관하는 일본 경제계에서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련 회장을 비롯해 이와사 히로미치 미쓰이부동산 회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히타치 회장,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n@

현정은 진두지휘 속 현대그룹, 대북사업 10년 만에 재개

(현대그룹 회장)

'남북경협사업 TFT' 본격 가동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우선 점검
"그룹·계열사 핵심역량 총집결"



사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잘 받들어 계승해 나

가자"며 "남북경협사업 선도기업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사업재개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은 물론 향후 7대 SOC 사업까지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TFT는 현대그룹의 핵심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남북경협사업의 구심점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룹 TFT는 현대아산 대표와 그룹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실무를 지휘하고, 계열사 대표들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실무조직으로 현대아산 남북경협 운영부서와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연구부서, 전략기획본부 각 팀, 그룹커뮤니케이션실 등 그룹 및 계열사의 경험 전문가들이 역량을 총집결해 남북경협사업의 주요 전략과 로드맵을 짤 계획이다.

이 TFT 운영은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소집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우선적으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기존 사업들의 분야별 준비사항과 예상 이슈를 점검한다.

또 북측과 맺은 7대 SOC 사업권을 토대로 향후 전개할 다양한 남북경협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현대아산에서는 대표이사를 팀장으로 하는 '남북경협재개준비 TFT'를 별도로 구성해 내부 관련 조직 정비 등 전사적인 세부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현대그룹은 지난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개발, 개성관광 등 20여 년간 남북경협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00년도 8월에는 현대아산이 북측과

합의해 철도, 통신, 전력, 통관비행장, 금강산물자원, 주요 명승지 종합 관광사업(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7대 SOC 사업권 획득하고 원산·통천지구 협력사업 개발에 관한 합의서도 맺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8년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객 195만 명과 개성 관광객 11만 명을 유치했다. 2000만 평의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을 확보해 1단계로 100만평 부지 조성공과 공장 건축, 숙박시설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북측구간에 대한 자재와 장비공급하는 등 건설 인프라 분야에도 직접 참여했다.

현대그룹측은 "남북경협이 남북 관계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분위기 호전 등의 따른 여건이 성숙돼야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난 10년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와 확신으로 준비를 해온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뉴스 댓글조작 의혹' 네이버 오늘 추가대책... 근본 해결될까

한성숙 대표 직접 발표

'드루킹 사건'을 시작으로 댓글 조작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가 댓글을 비롯한 뉴스서비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발표한다.

네이버는 "뉴스 및 뉴스댓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는 9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대표이사와 유봉석 미디어서포트 리더가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밝혀지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는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5일에는 24시간 동안 하

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하는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도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아웃링크 도입, 기사 선별·배열 금지,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9일 네이버가 내놓은 두 번째 입장발표로 포털의 뉴스제공과 댓글 조작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발벗고 나선 스마트팜 성공 조건은

기술력 갖춘 대기업 참여 절실... 유통망 구축도 과제

농식품부, 4년내 혁신밸리 4곳 조성
일자리 4800개 창출 등 정착 지원
中·日·동남아 등 수출시장 확대해야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SmartFarm)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으로 최근 청년층의 귀농 활성화와 맞물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해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약 4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달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추



이낙연 총리가 지난 1월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업체인 ㈜농산을 방문해 파프리카 출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스마트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첨단 기술이 집적화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1년 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

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0ha가 조성된다.

1인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운영을 비롯해 오는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원)도 결정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부처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 기준 시설원에 40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ha, 5750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현대화된 온실(약 1만500ha)의 70%, 축산 전업농(약 2만3000호)의 약 25%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전국의 시·도 대상으로 7월 13일까지 진행한 뒤 7월 말 2개 시·도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맞물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 모집 경쟁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1을 기록하는 등 반응도 뜨거운 상황이다.

이처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한 중견·대기업들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손정의 서울대 교수는 "국내는 파프리카, 딸기 등 온실 위주로 ICT를 보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떨어진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대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와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구조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판매 시장 확대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기영 강원대 교수는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어느 시장에 팔 것인가가 문제"라며 "생산성을 올려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으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민끼리 경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시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손정의 만난 백운규, 에너지투자 확대 요청

〈소프트뱅크 회장〉

〈산업부 장관〉

日 도쿄서 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의견 교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일본 도쿄에서 전력망 연계, 원전안전 및 해체 등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손정의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협력,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지난 8년간 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이 1/10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저장장치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백 장관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비용 및 불안정성 문제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8일 일본 도쿄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왼쪽)을 만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에너지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백 장관은 반도체·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소개하면서 소프트뱅크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손회장은 지난해 유니콘 기업 등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1000억 달러 규모로 출범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 투자를 위해 한국의 국부펀드, 연기금 등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oT, AI, 스마트 로봇 등 소프트

뱅크가 집중하고 있는 3대 투자분야를 설명하면서 AI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밝혔다.

백 장관은 손 회장 면담 이후 도쿄 가조엔 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원전 안전·해체 포럼'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폐물 관리, 해체 등 공동된 현안에 직면해 있는 만큼 민·관합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영춘 장관, 印尼와 해양수산분야 협력

〈해수부〉

현지 초청... 12일까지 방문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사진)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양국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길에서 루훗(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의 면담을 통해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저광물 등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



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협정 체결에 따라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는 올해 8월 중에 인도네시아에 설립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항로 공동탐사,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 장관은 수지 뿌지아스투피(Susi Pudjiastuti)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 이슈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비롯해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관광피해, 환경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기술교류 및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근로복지공, 복권기금사업 성과 4년연속 1위

취약계층 복지수준 제고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매우 우수)로 평가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성과평가 결과,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수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1위(매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

라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1위 사업으로 평가 받게 됐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리로 용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복권기금 2600억원 포함)이 지원됐다.

용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8년 246만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및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지원을 위해 용자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정자금용자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접수

자동차·항공 등 모든 기술영역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을 이달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포상이다.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에게 포상하는 '산업기술진흥유공' 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 '기술대상'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한다.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요건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올 11월 '2018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술은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홍보·전시해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전남, 올 1.7兆 투자유치... 97社 3300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규모 '3270여 명'
수도권 등서 19개 기업 이전도
7개 산단 분양률 '7.4%' 늘어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함께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올 들어 4월 말까지 97개 기업과 총 1조 714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3270여 명이다. 지역별로는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진 나주에 38개, 영광에 12개, 담양 강진 영암에 각 6개, 해남에 5개, 장흥에 4개, 기타 시군에 20개 기업이 협약을 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34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식품가공 23개, 철강기계 11개, 석유화학 5개, 전기차 분야 4개 기업 순이다.

투자협약 97개 기업 가운데 67%(68개)는 신규 투자이고, 나머지 33%(29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6개 기업, 부산 등 부경권에서 4개 기업, 광주권에서 19개 기업이 이전해온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중점 관리하는 7개 산단의 평균 분양률도 47.1%로 지난해 말보다 7.4% 늘었다.

산단별로는 영광 대마산단 13.9%, 나

주 혁신산단 11.9%, 목포 대양산단 5.1%, 담양산단 2.4%, 장흥 바이오산단 2.2%, 강진산단 1.8%가 각각 늘었다. 목포 세라믹산단은 분양률 증감이 없다.

주요 투자협약 기업 가운데 광주 소재 화천기공은 영광 대마산단에 288억 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주물 제조공장을,

신안천사김은 강진 칠량농공단지에 158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마른 김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광주 소재 ㈜어스텍은 영광 대마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이차전지 등 재생공장을, 경남 창원 소재 데콘은 대불국가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산업기계 제조공장을 완공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독일 바스프는 여수국가산단에 877억 원을 투자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완공, 지난달 11일 준공식을 가졌다.

신규 창출된 일자리 23명 모두 30대 이하 전남지역 청년들로 채용됐다.

프랑스 에어리퀴드도 여수국가산단에 투자를 확정했다.

2019년 말까지 1570억 원을 투자해 수소?일산화탄소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산업, 전

기차 및 자동차 튜닝, 식품과 생물, 신재생 에너지, 첨단 세라믹, 드론산업 분야 등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제조업 위주의 양적 기업 유치에서 게임 개발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식정보문화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집중 유치해 취업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이 전남지역에 정착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만 개로 이 가운데 300개 기업 유치를 통해 6000 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산업단지 32개소 가운데 분양률이 낮은 7개 산단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과 함께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만개한 이팝나무

8일 전남 목포역 도로변에 심어진 30년생 이팝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돌목서 ‘명량 이순신’ 리더십 배우자”

전남도 '이순신 리더십캠프' 인기
25개 학교 1018명 학생 참가 신청

전남도가 운영하는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8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의 일환인 테마문화재학당사업으로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사업자로 선정돼 이뤄지고 있다.

전남지역 학생들은 물론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라도민들의 호국·희생정신을 선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남도가 지난 3월 전국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총 25개 학교 1018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 67명, 충남 40명, 대구 34명, 경북 75명, 경남 115명, 광주 33명이 신청해 이 캠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조선 수군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재건 44일의 기록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순신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울돌목 일원에 흩어져 있는 이순신 유적지와 문화유산 등을 해설사와 함께 답사하고 활쏘기, 문화배우기 등 다양한 충무공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 영암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17~18일 목포여중, 27~28일 김해여중이 참여해왔다. 13척의 전선으로 수백 척의 일본 적선과 싸워 승리를 일군 기적의 현장인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

십과 전라도 백성의 호국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관 전남도 관광과장은 "단편적인 해설이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토록 해 우리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보성군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1단계 이달 말 준공

전남 보성군은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5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세계 랍사로 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벌교갯벌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갈대군락지를 배경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90억원을 투자하며, 갈대탐방로 2870m, 에코센터 600㎡, 휴게쉼터 400㎡, 전망대, 갯벌 탐방데크 등 해양테마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1단계 사업은 갈대탐방로 670m와 탐방객 진입 편의를 위한 목교 1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군은 갈대탐방로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해 에코센터, 휴게쉼터, 갯벌탐방로 등을 설치해 지역문화와 관광,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양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중도방죽, 태백산맥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로 해양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벌교갯벌과 갈대군락지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이 전해지는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보성군 명인·명창 '굿GOOD 보러가자' 공연

보성군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명창들이 출연하는 명품공연 '2018 굿GOOD 보러가자'를 개최한다.

'2018 굿GOOD 보러가자'는 한국문화재단 주최,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지역에서 무형문화재 및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고품격 전통예술 공연이다.

올해 공모사업에 전국 22개 지역이 신청하여 보성군을 포함함 5곳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공연은 소리꾼 오정해 사회로 최고의 명인과 젊은 예술인 등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하여 지역의 스토리와 무형유산의 만남을 선보인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기타사항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순천시

양귀비·대마 재배 단속

순천시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순천시는 광주지방검찰청순천시청과 6개 시·군(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보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재배지 및 밀경작 우려 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은폐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행위를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남 순천=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2030 청년 잡아야 '대박 청신호'

대학가 사로잡은 프랜차이즈 비결은 '가성비'

외식프랜차이즈업체가 가성비를 앞세워 대학가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인의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중장년 남성들을 비롯해 여성 및 주부, 청년들까지 대학가를 공략하는 외식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 들고 있는 모습이다.

곱창고는 곱창을 보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곱창고는 대학가에 직영 및 가맹 매장을 입점시키며 대학생 고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실제 곱창고는 직영 매장인 한양대점과 부산 경성대점을 비롯 대구 경북대점, 흥대점, 건대역점, 성균관대역점 등 현재 대학가 근접 상권에 2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곱창고가 특히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비결로는 고가의 메뉴라는 인식이 강한 곱창 메뉴를 우수한 품질임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소곱창모듬을 비롯한 구이류와 곱창전골, 황제갈비살, 갈비짜글이 등과 같은 식사메뉴와 창고밥, 냉메밀국수 등 사이드 메뉴까지 갖춰 메뉴 선택 폭이 넓다는 점도 인기 비결로 꼽히고 있다.

컵밥 전문 프랜차이즈 지지고는 과열



곱창고 흥대점.

/곱창고

곱창고 '가성비'로 학생저격 성공
지지고 간편한 한끼 식사로 인기
싸움의고수 보쌈·삼겹살도 '혼밥'
더진국 '젊은국밥' 틈새시장 공략

된 창업 시장에서 9년간 독자적 입지를 다져왔으며, 숙대, 흥대, 인하대 등 각 지역의 대학가에 매장이 입점했다. 시간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간편한 양질의 한끼 식사를 선사해 온 지지고는 철판요리를 내세워 다른 컵밥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를 이뤘다.

지지고는 차별화한 컵밥 메뉴와 뛰어난 공간 활용성,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통해 소자본창업 유망 아이템으로 인정받았다. 1인 창업이 가능하며 높은 회전율을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가에도 1인가구 증가 및 혼밥문화 확산으로 이를 겨냥한 브랜드들이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인보쌈, 1인삼겹살을 판매하는 혼밥 전문식당 '싸움의고수'는 대학가에 입점한 매장을 포함해 약 50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브랜드의 인기요인은 식사 메뉴보다는 여럿이서 먹는 음식, 외식이나 회식 메뉴의 성격이 강한 보쌈과 삼겹

살을 1인에 맞게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췄다는 점이다. 또한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도 보쌈, 삼겹살을 식사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자바(bar) 테이블과 2인석 테이블을 주로 배치해 1~2인 고객을 위한 편의성을 갖췄다. 여기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일본식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통한 '조리 소요시간 평균 1~2분', 서빙 및 세척의 간편함, 무인단말기 설치 등 초보 창업자 친화적 운영시스템으로 유망프랜차이즈 창업아이템이라는 평이다.

국밥 프랜차이즈 더진국은 대학가에서 수육국밥이라는 독자성과 차별성을 갖춘 메뉴로 틈새시장을 개척했다. 경쟁이 치열한 외식프랜차이즈 속에서도 더진국은 특허받은 육수로 만든 수육국밥, 얼큰국밥, 수육백반 정식, 직화구이정식 수육보쌈, 순대볶음 등 한식 메뉴라인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평 속에 소비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진국은 '젊은국밥'으로 불릴만큼 대학가는 물론 젊은 이의 거리에 주로 입점해 있다.

더진국이 20·30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맛과 음식 주문 후 서비스되기까지도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점이다. 점주 입장에서는 식사시간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1시간에 3번 정도 이상의 테이블 회전율을 수월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휴온스

美에 '리도카인주사제' 890억 규모 수출 개시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제네릭 품목허가를 획득한 국산 주사제 완제품 '1% 리도카인 주사제 5ml 앰플'로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휴온스는 미국 파트너인 스펙트라사와 총 893억원 규모의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휴온스는 국내 제약사로는 유일하게 미 FDA로부터 주사제 완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두 회사는 휴온스의 주사제 완제품에 대한 높은 품질 경쟁력과 우수한 제조설비, 탁월한 공급 능력을 기반으로 현재 미국 내 주사제 시장에서 '리도카인주사제'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공급 계약을 전격 체결하게 됐다.

휴온스는 이번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 안정적으로 미국 주사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어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및 유럽으로 수출 지역을 더 확대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1% 리도카인주사제 5ml'는 미국 현지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를 겪는 품목이다. 휴온스는 이번 계약과 동시에 제품 선적 및 출하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펙트라'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전역으로 '리도카인주사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주사제 완제품을 통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직접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매출 10% 신약 R&D 투자 '당돌한 중견 제약사'

부광약품 매출 20% 신약개발에
삼일제약 간질환 분야 투자 강화
유유제약 점안액치료제 개발 가속

일부 중견·중소 제약사들이 차세대 블록버스터 신약 투자에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제약산업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10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2011년 11조4372억 원에서 2016년 20조126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2011년 8.5%에서 2016년 8.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지표는 연구개발에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부광약품 등 중견·중소 제약사들은 신약 R&D 부문에 지난해 매출의 10% 이상을 투자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3분기까지 총 225억 원을 신약개발에 투자했다. 이는 매출 대비 20%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영업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다.

지난 1월 미국 Melior와 공동개발 중인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MLR-1023'의 글로벌 후기 2상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이 약 50% 진행됐다. 이 신약은 이미 2상 전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MLR-1023은 인슐린 세포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린 카이네이즈를 선택적이고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인슐린 수용체 기질을 인산화시킴으로써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8일 한 제약사의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신약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픽사베이

어린이 감기약 '부루펜'으로 유명한 삼일제약은 신약 개발보다는 주력제품에 의존하는 보수적 회사로 평가 받았었다. 그러나 1981년생 젊은 최고경영자(CEO)인 허승범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삼일제약은 2016년부터 허 대표의 주도로 간질환 분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이스라엘 바이오제약사인 갈메드로부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아람콜' 기술을 도입했다. 아람콜은 현재 미국 FDA 임상 2b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 또는 3분기 임상 결과를 토대로 갈메드사와 함께 국내 임상 3상을 계획 중에 있다.

개발을 마치면 삼일제약은 국내에서 아람콜의 독점 판매권을 차지하게 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2b 상을 진행 중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판 승인된 약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가 350

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개발 완료 시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유제약도 안구건조증 치료 펩타이드 신약(YY-101)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유유제약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구건조증치료제(점안액) 후보물질 'YY-101'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YY-101은 유유제약이 자체개발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펩타이드 성분을 이용한 신약이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마르는 질환인 안구건조증의 기존 치료제는 눈물층 보습이 주요 목적이지만 펩타이드 신약(YY-101)은 안구건조증의 원인 중 하나인 염증 억제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 남성 28명을 대상으로 YY-101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으로, 부산백병원에서 수행

한다.

유유제약은 골다공증 개량 신약 '맥스마빌', 뇌졸중 개량 신약 '유크리드' 외에도 안구건조증 신약(YY-101), 양성전립선비대증 복합치료제(YY-201)의 임상 등 개발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움직임에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어려워지는 제약 영업 환경으로 부담을 느낀 일부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약업체가 지난 2016년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총 1조7694억 원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비용은 1조6964억 원으로 전체의 95.9%를 차지했다.

이에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박영준 교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제13호 정책보고서 'KPMA Brief'에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제약산업은 전형적인 'High Risk-High Return', 지식기반, 의약품 콘텐츠가 중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자금의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후반기의 임상 제품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고, 의약품 개발 성공 후 기술료 등으로 수익 일부를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하는 선순환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쥬씨 '365일 무료쿠폰 증정' 수박살사 6종 출시 이벤트

쥬씨가 수박살사(SALSA) 6종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박살사 6종을 3잔 마시면 '수박살사큐브 1+1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5월 주요일자에 쥬씨멤버스 스탬프를 적립하면 추첨을 통해 '쥬씨 365일 무료쿠폰'을 증정하는 총 2가지다.

먼저 '수박살사큐브 1+1 쿠폰증정' 이벤트는 쥬씨멤버스 가입 고객 누구나 쥬씨멤버스가 가입돼 있는 쥬씨 매장에서 수박살사 6종을 메뉴 구분 없이 스탬프를 3개 적립하면 수박살사큐브 1+1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수박살사큐브는 수박주스 위에 별도의 카트리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수박을 잘라 올려놓고 주스와 함께 갈지 않은 수박 자체의 맛을 곁여 즐기는 제품이다. 이번에 새로운 개념으로 출시됐으며 출시 이후 고객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쥬씨 측은 설명했다.

'쥬씨 365일 무료쿠폰' 증정 이벤트는 5월 주요기념일에 모두 쥬씨멤버스 쿠폰을 적립하면 추첨을 통해 쥬씨 음료는 1년 동안 매일 즐길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이며 적립시 멤버스 스탬프 적립이 가능한 모든 쥬씨 메뉴가 해당된다.

한편 '수박살사'란 라틴아메리카 '살사' 특유의 흥겨움과 '살사음식의 어우러짐'이라는 두 가지 특징들을 수박주스에 담았다는 뜻이다. /박인용 기자



Advertorial Corner

‘귀요미’ 어피치로 여심저격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더페이스샵×카카오프렌즈

쿠션·바디 등 16개 콜라보레이션

더페이스샵은 국민캐릭터 카카오프렌즈와 ‘2018 더페이스샵×카카오프렌즈’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에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중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는 ‘어피치’가 더페이스샵 인기 제품에 등장한다. 쿠션, 바디, 크림 등 총 16개의 제품이 출시됐다.

대표 제품인 ‘어피치 쿠션 케이스’는 어피치가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귀여운 핑크빛 케이스에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리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리필은 기능에 따라 다크닝, 커버, 보습, 수분, 윤광, 내추럴 총 6가지로 피부 타입 또는 고민에 맞춰 고른 다음 어피치 케이스에 끼워 주면 된다.

‘스위트어피치 체리블라썸 바디 워시&로션’은 옆드려 있는 어피치 모양을 그대로 살린 용기로 귀여움이 더욱 극대화해 소장가치를 한층 높였다. 수분감이 가득한 바디 워시와 바디 로션이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전달하고 달콤한 체리블라썸 향기가 더해져 봄기운을 물씬 전달한다.

이 외에도 미세한 입자의 파우더가 하루 종일 보습보송한 피부로 유지시



‘더페이스샵×카카오프렌즈’ 콜라보레이션 스위트어피치 에디션. /LG생활건강

켜주는 ‘어피치 기름종이 파우더’, 2018 S/S 메이크업 트렌드 컬러로 아이 및 치크 메이크업이 가능한 ‘어피치 모노팝 아이즈’ 등이 출시됐다. 베이비 케어와 선크어 제품 등도 더페이스샵 제품력에 어피치의 귀여움이 가득 담겼다.

더페이스샵 담당자는 “이전 카카오프렌즈 콜라보레이션도 더페이스샵의 제품력에 카카오프렌즈만의 캐릭터 특성이 잘 결합돼 인기가 좋았다”며 “어피치 캐릭터는 여심을 저격하는 핑크 컬러와 귀여운 표정이 더해져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페이스샵×카카오프렌즈 스위트어피치 콜라보레이션’은 전국 더페이스샵 및 네이처컬렉션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인공지능 품은 온라인쇼핑몰

“이미지 검색으로, 쇼핑 더 쉽게”

앱으로 쇼핑하는 ‘엄지족’ 호응
딥러닝·머신러닝 기술 등 접목
신세계·롯데닷컴·11번가 등 운영

인공지능이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온라인쇼핑몰이 ‘이미지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지 검색 기능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사진으로 상품을 검색하는 서비스다.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촬영하면 해당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이 검색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는 ‘엄지족’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미지 검색이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앞서 구글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 기업들은 이미지 검색을 일찌감치 도입하기도 했다. 상품 외에도 강아지 품종, 꽃 종류, 음식 이름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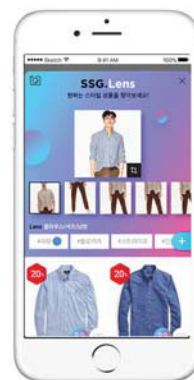
8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신세계몰이 이달부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이미지 검색 서비스 ‘쓱렌즈’를 선보인다. 쓱렌즈는 신세계몰이 직접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기술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신세계몰 어플을 켜고 원하는 상품을 촬영하면 똑같은 혹은 비슷한 상품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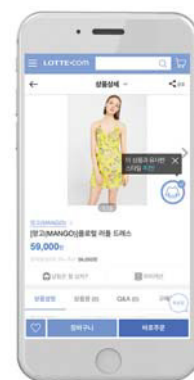
제품에 해당하는 가장, 형태, 패턴, 소재, 컬러 등 255개의 라벨도 자동 추천한다. 예를 들어 파란색 줄무늬 셔츠의 사진을 찍었다면 #긴팔 #면 #파란색 #스트



쓱렌즈 화면 캡처.



/신세계몰



롯데닷컴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 ‘스타일 추천’ 캡처. /롯데닷컴



라이프 #셔츠 등의 이미지 라벨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라벨 정보는 타 사이트처럼 사람이 하나하나 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붙여진다.

신세계몰은 이달 말까지 쓱렌즈를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김예철 신세계몰 상무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단순히 쇼핑 정보 제공을 넘어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닷컴과 11번가 등도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롯데닷컴은 2016년 1월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계학습) 기술이 탑재된 이미지 검색 서비스 ‘스타일추천’을 선보였다. 소비자가 보고 있는 상품의 이미지를 분석해 유사한 색상, 패턴을 가진 상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기존 기능에 데이터가 축적되면 검색결과와 정확도가 올라가는 머신러닝 기술을 추가했다.

롯데닷컴은 스타일 추천 시스템을 구두와 가방 등 패션잡화군과 가전, 가구, 생활품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1번가도 이미지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서 이미지 검색을 클릭하고 옷, 신발, 가방을 촬영하거나 저장된 사진을 통해 검색하면 가장 유사한 상품들을 보여준다.

인터파크도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 ‘쇼핑카메라’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패션과 잡화 뿐만 아니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검색 시장’을 쥐어잡고 있는 IT 기업들도 이미지 검색 기술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포털사 이트는 쇼핑 상품은 물론 사람의 얼굴까지도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미지 검색의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롯데월드몰에 오픈한 소프트랩 팝업스토어. /빙그레

롯데월드몰에서 만나는 빙그레 ‘소프트랩’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팝업스토어
유지방 최다 함량... 부드럽고 진한 맛

빙그레는 자사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랩’ 팝업스토어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3층 홍그라운드에서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빙그레 소프트랩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원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B2B 사업의 브랜드 이름이다. 소프트랩에서는 유제품 사업과 빙과사업부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빙그레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저가형 소프트 아이스크림과의 차별점을 강조한 제품을 선보인다. 소프트랩의 유지방 함량은 12.1%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높은 함량이며 이를 통해 부드럽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빙그레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랩 안테나숍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다. 경의선 숲길 공원, 일명 ‘연트럴 파크’에 인접하고 있는 소프트랩 안

테나숍은 일평균 25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여름철 방문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랩을 취급하는 점포의 수도 올해 들어 월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빙그레가 운영하는 소프트랩 매장은 브랜드 홍보 및 샘플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제조 기기가 없으면 샘플을 제공할 수 없어 매장을 통해 소비자 반응을 살펴 보고 있다. 또한 소프트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소프트랩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소프트랩 매장운영은 현재 소프트랩을 취급하는 사업자 분들과의 상생을 위해 브랜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또한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기 구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을 위해 렌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소프트랩 취급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세계면세품 시장 장악 나선 정관장

KGC인삼공사
‘2018 세계면세품박람회’ 참가

KGC인삼공사는 오는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8 세계면세품박람회’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세계면세품박람회는 세계면세협회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 박람회로 싱가포르와 프랑스 칸에서 매년 두 차례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300여개 업체가 참가하여 3000여 종류의 프리미엄 제품이 전시된다.

KGC인삼공사는 인삼 브랜드인 ‘정관장’으로 작년부터 2년 연속으로 참가하게 된다. 장인 정신으로 오랜 시간 발전시켜 온 고려삼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삼중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담은 브랜드 스토리와 대표 제품들을 해외에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 면세 시장이 럭셔리 패션·시계·주얼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2017 세계면세품박람회 KGC인삼공사 부스. /KGC인삼공사

한국 대표브랜드인 ‘정관장’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KGC인삼공사의 참가 의의가 크다.

이번 박람회에서 KGC인삼공사는 해외 면세점을 찾는 소비자의 폭넓은 연령대와 건강관련 니즈를 고려해 해외 면세점 전용 제품 ‘정관장 플러스 시리즈’를

선보인다. ‘정관장 플러스 시리즈’는 패밀리 케어를 콘셉트로 하고 있다. 6년근 정관장 홍삼에 자연소재 기능성 원료를 조화시킨 6종의 제품이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 필요한 기능성 성분으로 설계했으며 섭취와 휴대가 편리한 패키지에 담아 출장 및 선물용으로 적합하도록 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세계면세품박람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면세 업체들과의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아태 지역을 넘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으며, 글로벌 면세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Ginseng Cocktail Party(인삼 칵테일 파티)’를 개최하여 홍삼을 체험하고 ‘정관장’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11번가, GS프레시 새단장... 당일배송 기획전

오후 5시까지 주문하면 당일배송

11번가는 GS리테일의 온라인몰 ‘GS프레시’ 전문관을 새 단장하고 제철 신선식품을 당일 배송하는 ‘마트 쇼핑의 모든 것’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오픈마켓 중 11번가에 처음 입점한 GS프레시는 최근 11번가에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며 1만4700여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11번가 고객들은 농산물, 정육, 수산물, 냉장·냉동 식품, 가공식품, 세제, 유아용품 등을 비롯해 GS리테일의 PB브랜드인 ‘유어스’, ‘리얼라이프’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전국 GS수퍼마켓에서 진행되는 ‘금

주 전단 세일’ 제품들도 구입 가능하다.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원하는 시간대별로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으며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된다. 서울·경기 지역은 GS프레시의 5개 온라인 전용물류센터에서, 그 외 지역은 거주지 인근 GS수퍼마켓 매장에서 구매 제품을 배송해준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GS리테일의 온라인 전용물류센터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배송이 이뤄진다.

/김유진 기자

SK하이닉스, 독거노인에 AI 스피커 지원

대화·음성제어 '실버프렌드' 무상 서비스

SK하이닉스가 독거노인에게 대화, 음성제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실버프렌드'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SK하이닉스 박성욱 CEO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프렌드 주요 서비스는 대화 기능과 전자 제품 음성제어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스피커를 활용한 감성 대화, 즐겨 듣는 옛 노래 재생 등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경감시켜준다.

또한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조명스위치를 설치해 음성으로 TV와 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실버프렌드는 위험상황 방지 역할도 수행하



SK하이닉스가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실버프렌드' MOU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SK하이닉스 박성욱 CEO(오른쪽).

게 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산하 지역 거점 및 수행기관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등 제공된 기기의 데이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사업장이 위치한 이천,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000가구에 '실버프렌드' 패키지를 내년 말까지 무상 제공하고, 이후 효과성이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8일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 재개장식에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주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 개장

호텔신라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으로 선정된 제주시 동광로 소재의 '시니어손맛아리랑'이 2018년의 첫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으로 재개장했다고 8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1호점을 재개장한지 4년 3개월만에 20호점을 돌파했다.

20호점은 권경림(77세), 박남순(73세), 김연순(72세), 고기선(69세) 등 어르신 4명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 아버지날을 재개장 날로 정했다.

시니어손맛 아리랑의 영업주들은 역대 맛있는 제주만들기 영업주 중 나이가 가장 많다. 현재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네 명의 나이를 합치면 291세에 이른다. 기존의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들이 생계형 영업인 것과 달리 20호점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요리기법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하루에 매출 10만원을 넘지 못하는 날이 지속됐다.

이에 호텔신라는 식당 운영을 맡은 어르신들과의 면담과 인근 관공서와 사무실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한 주변 상권조사를 바탕으로 20호점만의 차별화된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노하우를 전수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호점은 아버지날에 개장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데 맛있는 제주만들기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 서민금융 이용수기집 발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 이용자의 수기를 엮은 '절망과 희망의 순간들'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기집에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다가 취약계층 자립자금, 전통신장 소액대출,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대출, 개인·프리워크아웃, 바

퀴드립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23편이 담겼다. 모두 지난해 개최한 서민금융 이용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글이다.

책자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 지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

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한 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분이 희망을 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김민조의 운세 5월 9일 (음 3월 24일)

민조 역학 학당(02-713-8207 www.kimminjo.co.kr)

- 쥐** 48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쉽게 이뤄진다. 60년생 동려와 언쟁으로 손재수가 있다. 72년생 실질적인 협조를 만나게 되니 도움이 크다. 84년생 일에 방해자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라.
- 소** 49년생 과거에 베푼 덕을 보게 된다. 6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73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공돈을 기대 하지 마라. 85년생 화초가 습기가 너무 찬 곳에 있어 뿌리가 썩는 격이다.
- 호랑이** 50년생 옆에 사람을 도와주면 보답이 크게 온다. 62년생 모임에 적극 참석하여 스트레스를 풀게 된다. 74년생 교통사고나 화재를 당 할 수 있다. 86년생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커다란 성과를 낸다.
- 토끼** 51년생 동업자와 일하는 재미가 있어 하루가 즐겁다. 63년생 어두운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된다. 75년생 귀인이 와서 도와주니 일이 수월해진다. 87년생 차분하게 하루를 계획하고 꼼꼼히 일을 하니 보람이 있다.
- 말** 52년생 투자한 만큼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64년생 곤란한 처지에 빠지니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라. 76년생 상대방과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군소리가 없다. 88년생 주변 변화에 능동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라.
- 뱀** 53년생 대충 적당히 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5년생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77년생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되고 반가운 소식이 온다. 89년생 상하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말** 54년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군인지 살펴보라. 66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근심걱정이 있다. 78년생 완전실이 있어 힘든 일이 생긴다. 90년생 적은 돈은 생기지만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되니 방심마라.
- 양** 55년생 잘못된 판단으로 일의 진행이 더디게 된다. 67년생 굶어진 속대도 삼발에 있으면 곧아 진다. 79년생 절처봉생으로 되살아 나게 된다. 91년생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면 구설수로 고생하게 된다.
- 원숭이** 56년생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마라. 68년생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 대접대 받게 된다. 80년생 동업자의 배신이 있어 후회하게 된다. 92년생 헛바닥에 귀신이 붙어 말로 상처를 받게 된다.
- 닭** 57년생 충실이 작음 하여 가슴이 아프고 편하지 않다. 69년생 원진살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을 듣게 된다. 81년생 금전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다. 93년생 애스런 일이 해결되어 마음이 가볍다.
- 개** 58년생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다. 70년생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섭섭한 일이 있다. 82년생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상할 수가 있으니 계단을 잘 살펴라. 94년생 사소한 다툼이 크게 되니 조심하라.
- 돼지** 59년생 좋은 벼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된다. 71년생 육신이 피로 할때는 폭 쉬는 것이 좋다. 83년생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95년생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비바람을 피하려면

평생을 무난하고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희유한 일이다. 사주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는 것이다. 비바람이 돌풍으로 변하던 지난 4월 초 그 날이 임신(壬申) 일이었다. 봄에 맞는 임신 일은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이 자연의 기운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상당한 비는 아니었다. 그런데 빗줄기는 저녁나절 가까워서는 맹렬한 바람 소리가 건물들을 휘돌아서는 부딪치는 곳마다 무서운 소리를 내며 매섭게 휘몰아치는 돌풍 그 자체였다. 사실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한국은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서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피해가 대륙 보다는 적은 편이다. 미국처럼 평야나 땅이 넓은 곳은 '토네이도'라 해서 집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 올리고 심지어 바람 소용돌이 속으로 집과 자동차가 끌려 올라가는 일이 허다하다. 자연현상 속에서 바람의 위력은 순간에 주변을 초토화 시키고 이수라장을 만들어 버린다. 그 피해 현상을 원상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생사에 있어서 이렇게 돌풍과 같은 바람이 불 때가 있다. 인생의 높낮이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 내지 방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연현상을 어찌하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 대처를 하면 그 피해를 축소시킬 수가 있듯이 말이다. 지난달 초에 인묘진(眞卯辰) 목국(木局)의 묘(卯)와 신자진 수국(申子辰 水局)의 기운이 만나 비와 바람을 몰아왔다. 자, 이를 가정사에 대비해 보자. 묘(卯)의 아리따운 여자와 신(申)의 기백이 넘치는 남자가 만났다면 어떠한 상황이 도래 될지는 비바람 태풍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이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정이 박살나면서 비바람이 아니라 피바람을 몰아 올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럴 때 부딪히면 그 피해는 마치 돌풍이 몰아친 후의 현상과 같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겠는가?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게 묘해서 영웅은 미녀를 좋아하듯 첫 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만났다면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사주를 보고 알아야 한다. 아니면 참을 인자 세 번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참지 못했을 때 그 후의 불상사는 후회할 들 때는 늦는 것이다. 인생의 비바람, 못 피하는 것이 아니기에 귀담아 들어야 하는 지혜를 갖추어 보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3	2				
3			8			1		
			6				2	
	9	8						2
5			9		1			3
6						9	7	
	4				8			
		3			9			6
			4	6			8	1

	9	5		2	4			
1			5					9
8			1				4	
	1	7		3	9			
			8	4			7	2
		4			5			6
		8			3			9
			2	8		3	7	

스도쿠 정답								
1	8	2	9	5	4	6	3	7
9	5	7	6	3	1	8	2	4
6	4	3	8	1	5	9	7	2
7	1	6	5	8	2	1	9	3
8	9	8	1	7	6	4	2	5
2	1	5	9	4	8	6	7	3
8	2	4	6	9	7	5	1	3
4	6	1	7	5	8	2	9	3
5	7	9	2	1	6	8	4	7
7	4	1	9	8	2	1	5	6
6	1	5	4	7	8	2	9	3
9	8	2	5	1	6	7	4	3
3	2	4	1	7	8	6	9	5
1	6	9	2	5	4	8	7	3
5	7	8	6	9	1	2	3	4
2	5	7	4	6	1	9	8	3
4	6	8	9	5	2	7	1	3
8	9	1	7	2	3	5	6	4

문제 제공= 보너스

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잠을 잘 때 코를 심하게 골거나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인 남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 증상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 및 심폐혈관계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

수면무호흡증은 주로 심한 코골이에서 시작되며 만성피로나 비염, 코막힘, 급격한 체중증가, 잘못된 생활습관, 잦은 음주·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면 중 호흡 기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코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환절기에 증세가 더 심해지는게 특징이다.

이처럼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수면습관과 체계적인 다이어트, 금연 및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목구멍이 좁아져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또 비만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이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 목둘레가 17인치(43.2cm)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다이어트로 전체 체중의 10%를 감량하면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만일 치료를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방법은 증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코만 고는 경우라면 체중감량이나 금연, 금주, 구강호흡 개선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

반면 치열이 좁고 깊은 경우나 교정치료를 받은 후 코골이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치열 교정을 통해 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숨길(기도)을 넓혀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일시적으로 기도가 완전히 막히고 10초 이상 호흡이 끊어지는 증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반복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인 경우에는 수면 중 아래턱이 후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턱을 앞으로 위치교정 시킨 뒤 기도를 열어주는 구강 내 코골이 교정 장치를 착용해줘야 한다.

교정 장치를 착용한 뒤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만족스러운 수술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턱과 구강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승치 원장

예보, 신임 감사에 선환규씨 선임

예금보험공사는 8일 신임 감사에 선환규 씨(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 신임 감사는 1950년생으로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학 석사를 취득했다.

우리은행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본부장, 우리은행 주태금융사업단 단장, 우리



을 역임했다.

은행 개인고객2본부 부행장 등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아미바생명 대표이사를 지냈다. 최근까지 글로벌 모기지 경영교문을 역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퀴즈 이벤트

중기중앙회, 1000명에 문화상품권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퀴즈이벤트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시 생활안정 혹은 사업 재기 목적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제도다.

이번 이벤트는 9일부터 18일까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다.

중소기업주간 관련 퀴즈를 맞힌 정답



자 중 선착순 1000명에게 문화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약 98만 4000명의 소기업 및 소

상공인이 가입돼 있고 약 8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가입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시중은행 등에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유커에 시달리는 한옥촌



박인웅 기자 수첩
(유통&라이프부)

아침부터 단체관광객들이 오면서 소음과 쓰레기에 시달리는 동네가 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이다.

2000년대에 한옥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북촌마을 가꾸기 정책이 수립되고 환경개선운동과 한옥보존운동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지금의 북촌한옥마을이 됐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악산 기슭에 있는 한옥 보존지구로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북촌이라고 한다. 북촌은 고관대작들과 왕족, 사대부들이 모여서 거주해온 고급 살림집터로 한옥은 모두 조선시대의 기와집이다. 1992

년 가회동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되고, 1994년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일반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만 2000년대 들어 한옥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북촌마을 가꾸기 정책이 수립되고 환경개선운동과 한옥보존운동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던 곳이 최근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에는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새벽부터 물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는 수십년 전에는 1~2년전부터 한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외국인 관광객 가리지 않고 벨을 누르거나,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쓰레기와 소음에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노상방뇨를 목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많은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관광버스로 인해 주민들은 위협을 받고 있

다. 왕복 4차선 도로 중 양쪽 한 차선씩을 차지하고 있어 주말마다 차량으로 꽉 막혀 있다. 이에 주민들은 사생활 피해를 호소했지만, 서울시와 종로구는 답변보상했다. 결국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말마다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북촌마을 실거주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찾겠다"며 "관광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촌한옥마을이 거주지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때다.

/parkiu7854@metroseoul.co.kr



동국제강, 어버이날 맞아 해외주재원 부모님께 선물 배송

주재원을 대신해 '부모님 선물 배송 이벤트'를 가졌다. 8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7개 해외지사 주재원 중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3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국제강은 타지에 있어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주재원들을 대신해 부모님 맥으로 카네이션, 홍삼 등의 선물을 발송했다.

동국제강이 어버이날을 맞아 해외지사 주재원들을 대신해 '부모님 선물 배송 이벤트'를 가졌다. 8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7개 해외지사 주재원 중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3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국제강은 타지에 있어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주재원들을 대신해 부모님 맥으로 카네이션, 홍삼 등의 선물을 발송했다. /동국제강

제일기획 해외 디자인·디지털상 연이어 수상

제일기획이 영국과 미국에서 열린 디자인·디지털 중심의 국제 광고제에서 연이어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제일기획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광고·디자인 시상식 'D&AD 2018'에서 은상 2개, 동상 5개 등 7개의 본상을 받았다. 올해 56회째를 맞은 D&AD는 역사와 위상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식으로 평가된다. 광고의 디자인 요소를 비중 있게 심사하며 시상 기준이 타

광고제보다 엄격해 경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일기획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 '웹비 어워드(The Webby Awards)'에서 심사위원과 네티즌이 뽑은 최고상 1개씩을 포함해 9개 상을 수상했다.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는 별칭을 가진 시상식은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인사

- ◆예금보험공사 ◇신규 <감사> △선환규
- ◆NH투자증권 ◇부장 △IB영업기획부 김중석
- ◆한국조폐공사 ◇신규 <감사> △정준영
- ◆한국철도시설공단 △홍보실장 윤여철 △기획본부 혁신성과처장 김동범 △경영본부 계약처장 임연민 △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장 민병균 △건설본부 설계실 건축설계처장 정철기

부음

▲허윤수(전 대통령 경호실 부이사관)씨 별세, 허은(청강문화산업대 교수)씨 부친상, 이인찬(SK

플래닛 대표이사)씨 장인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0일.

▲윤동민 씨 별세, 박창호(전 부산일보 편집국장·현 아이에스동서 감사)·철세(유평 대표)·철민(GB 프리시즌) 씨 모친상, 김병일(강서 행정사무소) 씨 장모상 = 8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시민장례식장 VIP실(2층), 발인 10일 오전 8시.

▲이은희씨 별세, 오재경(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총무부 이사)씨 부인상 = 7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9일 낮 12시

▲백대현 씨 별세, 노행자(한국여성작가회 운영위원)씨 남편상, 백정선(미국거주)·은옥(미국거주)·은영·자영(충암고교사)·승두(개인사업)씨 부친상, 전태현(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부동산부장) 씨 장인상 = 8일 오전 5시,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윤복순 씨 별세, 조민식(여주중앙감리교회)·건식(한국기술연합대표)·종식(롯데그룹 호텔&서비스BU 상무)·권식(위즈영어대표)·명식(래연재단도자미술관 명예관장)·춘분 씨 모친상, 윤성력(여주중앙감리교회)·송덕금(태산트레이빙)·이현정(주부)·이숙영(매화유치원장)·서광례(도미너트 음악원장) 씨 시모상 = 7일 낮 12시 30분, 세종여주병원 특3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장지 여주시 왕대리 가족묘원.

니콘

'TIPA 월드 어워드 2018' 4개제품 부문별 최우수상

니콘이미징코리아는 'TIPA 월드 어워드 2018'에서 자사의 4개 제품이 각 부문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TIPA 월드 어워드는 전 세계 주요 카메라 및 영상 관련 전문지의 편집장들이 최근 1년간 출시된 제품 중 부문별로 가장 뛰어난 제품을 선정하는 상이다.

니콘은 올해 어워드에서 베스트 DSLR 프로페셔널 부문에 D850, 베스트 AP S-C DSLR 엑스퍼트 부문 D7500, 베스트 러기드 카메라 부문 쿨픽스 W300s, 베스트 프로페셔널 렌즈 부문 AF-S 니코 180-400mm f/4E TC1.4 FL ED VR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니콘의 설명에 따르면 D850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춘 DSLR 카메라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도요타·렉서스 코리아 '세이프티 플러스' 서비스

도요타코리아와 렉서스코리아가 일반 보증기간 만료 고객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세이프티 플러스'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 구매 후 보증 기간(도요타 3년 또는 10만km, 렉서스 4년 또는 10만km, 선도래 조건)이 만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 기간 중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도요타 및 렉서스 자동차 공식 부품 및 유상 점검 공임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일 일부 품목 및 윤활유, 브레이크



수리 고객에게는 고급 여행용 파우치도 증정한다. /양성문 기자 ysw@

metro <small>메트로미디어</small>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육인동)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 05월 28일 제39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 03월 09일 제0046호

로스쿨 사회배려층 전형 7%로 확대... '변시낭인' 우려

〈높은 변시 경쟁률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들〉

법학전문대 개정안 심의·의결 2000명 중 최소 140명 해당 변시 합격률도 낮아져 우려

교육부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신입생 선발에서 사회 배려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의무적으로 7% 이상 뽑도록 한 데 대해 대학들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고 성토했다. 로스쿨로 입학해봤자 변호사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마당에 '변시 낭인'만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8일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 신입생 선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뽑는 특별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7%를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신체적·경제적 열악한 계층 5% 이상 선발을 권고했으나 개정안은 의



지난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이우영 교수(오른쪽)가 '변호사 시험제도 및 취업관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적으로 7% 이상 선발토록 했고 대상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됐다. 특별전형 대상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모집부터 특별전형 선발 하한선을 지키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장학금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25개 로스쿨이 올해 선발하는 2000명 중 최소 140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전국 로스쿨 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으로 특별전형 인원이 지난해 보다 24명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가 확대됐지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이들이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로스쿨 선발시험이 LEET(법학적성시험), 공인영어 성적, 학부 성적 등 정량 평가 성적으로 선발하는 만큼 일반전형 입학생들보다 이들 성적이 낮은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인재를 의무적으로 20%씩(강원·제주는 10%) 선발해야 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와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어 이들 대학의 변호사 합격률도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전체 평균 합격률(49.35%)보다 높은 대학은 서울시립대(45.33%)를 제외한 13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 로스쿨이었다. 지방 대학 중 영남대(59.79%)만 유일하게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률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인재를 배려하고 사회배려층을 더 뽑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져 '변시 낭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의)입구는 열어놨는데 출구 전략(변호사 시험 합격)은 없다"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향후 법조인 수급에 맞춰 정한 만큼, 변호사 합격률을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면접위원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조항 등 학생선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지방 대 대학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정하게 학생들을 뽑으라고 하는데, 대학들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의 대다수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의전원도 아니면서 공정하게 뽑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쇼핑 제3기 쇼핑호스트 21일까지 공개 모집

K쇼핑은 오는 21일까지 제3기 쇼핑호스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연속 쇼핑호스트를 모집하고 있는 K쇼핑은 앞서 두 차례 공개모집에서 지원자 전원에게 카메라 테스트를 제공했다. 이번 모집 또한 모든 지원자에게 오디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는 학력 제한 없이 신입과 경력 쇼핑호스트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1차, 2차 카메라 테스트 및 역량 면접을 거쳐 임원 면접 후 인턴십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경력직은 1차 카메라 테스트와 인턴십 과정이 면제된다.

K쇼핑은 TV 판매방송뿐만 아니라 예



능과 결합된 쇼핑방송 등 다채로운 미디어 커머스 방송에 걸맞은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KTH 홈페이지와 K쇼핑 채널, 온라인몰,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블라인드 영향? "채용시 학벌 안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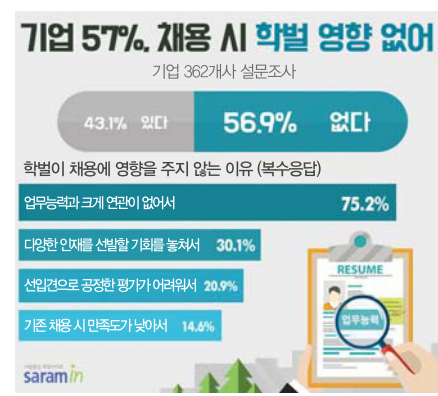
(기업 56.9%)

직무 적합성 중시 문화 자리잡아 채용 평가에 미치는 비율 '34.8%'

블라인드 채용과 직무 적합성을 중시하는 기업 채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직원 채용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던 학벌 중시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인은 기업 362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시 학벌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6.9%가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없는 이유로는 '업무 능력과 크게 연관이 없어서' (75.2%,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할 기회를 넓혀서' (30.1%), '선입견이 생겨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져서' (20.9%), '기존 채용시 만족도가 낮아서' (14.6%) 등이 있었다.



반면, '학벌이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 (43.1%)는 기업은 그 이유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채용 조건의 하나라서' (60.9%,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무수히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가려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은 '다른 자격 조건이 부족해도 학벌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채용한 사례'는 '없다' (71.2%)고 밝히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거점국립대학교 제전 10·11일 부산서 열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전호환 부산대 총장)는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학생 선수단과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체육 행사인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오는 10~11일 이틀간 부산대 경암체육관과 대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회원 대학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이번 행사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각 대학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10일에는 개회식과 배



구·배드민턴·여자발야구 등 구기종목 예선 체육행사가 열리고 저녁에는 대운동장 야외에서 축하공연과 대학별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된 리셉션과 만찬 행사가 진행된다. 11일에는 구기종목 결승과 단체종목 경기가 치러지고, 각 대학 총장들도 800m 계주에 참가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018 후기 신입생 모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신영섭)은 2018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및 문화예술인지도자과정 신입생 모집을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http://gsca.dongguk.edu)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8

일 밝혔다.

모집 학과는 ▲문예창작학과(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다.

/한용수 기자

잘 하지 못하는 말 "부모님 사랑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학생들이 평소 마음에는 두고 있으나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 1위로 '사랑해요'가 꼽혔다. 반면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 1위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어머йна를 앞둔 지난 5월 2일~4일까지 대학생 2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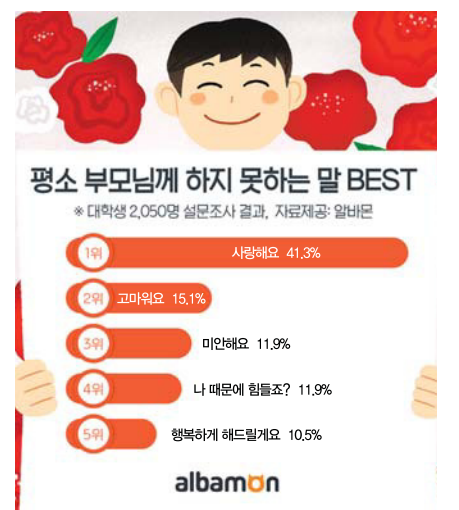
조사결과 대학생 대다수(91.9%)는 '평소 마음에는 있지만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사랑해요' (41.3%)가 가장 많았고, '고마워요' (15.1%), '미안해요' (11.9%), '나 때문에

가장 쉽게 내뱉는 말 "제가 알아서 할게요"

힘들지요' (10.5%),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4.3%) 등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주로 꼽혔다.

반대로 대학생 80.6%는 평소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이 있다고 했고, 그런 말 중 '제가 알아서 할게요' (2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 몰라요' (16.8%), '아 쯤!' (15.9%), '네~' (14.1%), '지금 좀 바빠요' (6.1%) 등 부모님과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말과 말투가 대다수였다.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로는 '취업' (19.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살가운 대화' (17.6%), '걱정 끼치지 않기' (16.1%), '좋은 학점으



로 장학금 받기' (14.3%),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기' (13.8%), '부모님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기' (12.4%), '건강' (3.3%) 등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효도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마음 같아선 한 10개쯤 사고 싶은 매머드급 레지던스 호텔

1가구 2주택
해당없음

양도세중과
해당없음

중부세
해당 무

공실
위험 없음

분양권
전매 가능

연간 1,100만 여명 방문의 명소!
1년 내내 비수기 없는 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 결과
4계절 관광객 넘쳐나는 대한민국 명소 중에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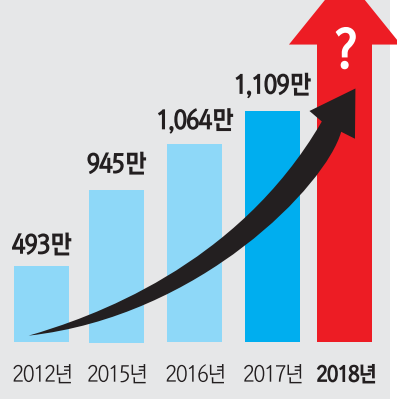
전주는 1년 내내 축제!

2.17	전주 한벽문화관 설날 문화축제
2.15~3.2	설대보름 맞이 전통문화축전
4.26~5.6	전주 국제영화제
5.5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축제
5.27~9.16	전주 문화재 야행
5.30~5.31	전주 단오제
7.27~7.29	전주 명품 복숭아큰잔치
8.4~8.6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
8.10~8.12	가맥축제
9.8~9.11	전주 대사습놀이
9.23~9.24	전북 음식문화대전
10월 초	전주 세계소리축제
10월 중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26~10.29	전주 비빔밥축제
11.23~11.25	전북 청소년영화제

1,100만 관광객!

미래가 기대되는
전주 한옥마을의 배후수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 전주시청



전주,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브랜드 호텔은 '태부족'

전주시 호텔업 등록현황, 총 17곳 836객실..
제주시 객실수의 7%에 불과 249실 규모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희소성으로 안정적인 수익 가능

연간 1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에 호텔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에는 한옥마을, 어진
박물관, 경기전 등의 유명한 관광지와 전주국제영화제와 같은
국제 행사도 매년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수용할 만
한 호텔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호텔업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전주시 호텔
업등록현황은 관광호텔업 11곳, 한국전통호텔업 1곳, 소형호텔
업 1곳, 호스텔업 4곳 등 총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등급
이 가장 높은 호텔은 총 166실 규모의 '호텔트윈'으로 특2등급
호텔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17곳 호텔의 객실수는 총 836실로
100실도 안되는 호텔들이 대부분이고, 브랜드 호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연간 1470만명이 찾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만해도
호텔 객실수가 1만 2425실에 달한다. 전주의 호텔 객실수가 836
실인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 객실수의 7%도 채 되지않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부족
현상으로 전주에서 선보이는 분양형 호텔이 수익형 대표 상품
으로 각광받고 있다. 메리트플러스(사행사)가 전북 전주시 완

산구 서노송동 일대에 분양중인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가
그 주인공이다.

베스트웨스턴은 5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호텔브랜드로서 전 세계 80여개국 4,000개 이상의 체인을 운영
하고 있다. 현재 국내도 서울, 부산, 인천, 포항, 군산, 제주 등
14개 체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고객만족브랜드 대
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는 베스트
웨스턴이 분양형 호텔로는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품이다.
분양관계자는 "전주는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이 발
달돼 있어 비수기, 성수기 할 것없이 4계절 내내 관광객 유입이
꾸준하고, 관광객 유입에 비해 호텔수도 부족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문 예약 후
상담시
"책 증정"

다시없을 투자 기회!
부동산 규제 틈새상품
부동산이 효자다

월세가 답이다
연중 관광객은 1,100만!
호텔은 겨우 836실 출처 한국호텔업협회



전주에 첫 선보이는 주호 복합형 분양형 호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 전주호텔 PREMIUM 혜택

안심 보장제도

- 호실당 8% 확정 수익 보장 (호텔 준공 시(1년 간))
- 보증금 일시불 선지급 (호텔 준공 시)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수익보장 공증서 발행 (시행사: (주)메리트플러스 제공)

계약자 특별 혜택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연 7일 무료 숙박 제공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부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계약자 본인 및 지정인 포함)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베스트웨스턴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객실 할인 혜택 (전국 6개 지점) BGH 코리아 제공

전주한옥마을 그 중심에 세계 최대 특급 호텔 체인
베스트웨스턴 수익형 호텔 국내 최초 분양!

총 249실
17.83㎡~52.07㎡

분양문의 **02) 2193-2121**

청약계약안내	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2-557865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	------------	------------------------	------------------

* 상기 CG 및 이미지, 알리스토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홍보물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혜택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제공하며, 자금관리 및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과는 무관합니다.
* 간주 상해 및 전라남도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인·허가 및 청사제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사는 이에 무관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내셔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명시절 시뮬레이션 연기, 다양한 캐릭터 밀거름”

스타인터뷰

영화 ‘챔피언’ 권 율

“따뜻한 가족 영화 ‘챔피언’ 안에서 불거지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할 수 있어 기뻛죠. 단순히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연기 욕심이 있는 편인데, 다양한 캐릭터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했고, 후회없이 촬영했죠. (웃음)”

2014년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권율은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굿속말’에서는 엘리트 변호사 강정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한계단씩 자신의 연기 영역을 구축해오고 있다. 반듯하고, 냉정한 도시 남자를 주로 연기한 권율이 이번 ‘챔피언’에서는 알뜰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기 기질이 다분한 떠벌이 스포츠 에이전트 진기로 분해 마동석과 연기 호흡을 맞췄다.

영화 ‘챔피언’은 타고난 팔씨름 선수 마크(마동석)가 미국에서 알게 된 진기(권율)의 설득으로 팔씨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마크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인생역전하려는 진기는 영화에서 가장 압제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며 의기양양해지만, 속마음만큼은 따뜻하고 아픔이 있다.

“사실 진기에 대한 전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의 대화를 통해 한때 유복했던 친구가 가



영화 ‘챔피언’ 스틸컷. /워너브라더스

세가 기물면서 ‘돈’에 집착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돈 때문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처음에는 진기와 마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으니깐요. 하지만,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물에 동화됐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죠. (웃음) 그래서 진기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주자장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동석이 주인공이지만, 극을 끌고 가는 화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권율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마크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관객에게도 전하는 게 권율의 역할이었다. 동시에 중간중간 코믹함과 진

팔씨름 소재 배우 마동석과 열연 허세 가득·속마음 따뜻한 진기 역

“마동석, 첫 코미디 연기의 버팀목 ‘작품에 스며들수 있는 배우’가 꿈”

기의 폭넓은 감정까지 살리는 게 버거웠을 터. 권율은 감독의 기준점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코미디가 처음인 권율에게 감독과 마동석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그는 “스스로 코미디 연기를 위해서 노력한 건 목소리 톤을 올리고, 말을 빨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라며 “마동석 선배가 코미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여쭙봤다. 진기는 대사량이 상당히 많다. 긴 대사들을 어떻게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 점을 많이 연구했다. 마크가 워낙 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진기를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챔피언’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팔씨름을 소재로 했다. 아마추어 대회에 나갈 정도로 팔씨름에 관심이 많은 마동석과 달리 권율은 팔씨름이라는 스포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팔씨름을 소재로 한 영화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팔씨름은 금지였다고도 설명했다. 생각보다 부상을 입기 쉬운 운동이라 안전을 위해 선수들의 손을 잡아보는 게 전부였다고.

권율에게 ‘챔피언’은 첫 코미디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흥행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흥행 성적에 관계 없이 이런

캐릭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중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금은제가 노력한 시간의 가치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박수받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해야 할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27세, 늦은 나이에 데뷔한 권율은 알려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권율은 무명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욕심이 더욱 생길 수 있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TV, 영화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연기했을까’ 하면서 머릿 속으로 수도 없이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악역도, 코믹한 역할도 항상 머릿 속으로 그려봤었고,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무명시절을 거치면서 흔들리는 시기도 분명 있었지만, ‘내가 배우를 하는 게 맞는 걸까’하는 의심은 없었어요. ‘어떤 연기를 대중에게 보여줬을 때 좋아해줄까’ ‘어떻게 해야 권율만의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까’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웃음)”

데뷔 11년차, 권율은 하루하루를 헛되지 보내지 않는 부지런한 배우 나아가 작품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배우가 되

는 것이 꿈이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기는 그의 자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배우 권율.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위성우 감독, 우리은행 지휘봉 4년 더 잡는다

여자프로농구 ‘통합 6연패’ 이끌어 최강팀 유지… 2022년까지 재계약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 /연합뉴스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통합 6연패를 이끈 위성우 감독이 4년 더 지휘봉을 잡는다.

우리은행은 8일 “위성우 감독과 오는 2022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계약의 세부 내용은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은 “위 감독은 2012년 4월 부임 후 팀을 통합 6연패를 이끌었다”며 “최강팀으로 변모시킨 검증된 지도자로 그동안 우리은행이 구축한 최강 전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향후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 감독은 “그동안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은행 특유의 팀 컬러를 더욱 업그레이드 해 여자프로농구 최강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원 코치도 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감독과 4년 더 호흡을 맞춘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박카스배 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 오늘 개막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서 2일간

동아제약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18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9일부터 10일까지 2일 간 제주도 오라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2018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동아제약과 SBS골프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며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2018년 현재 선수등록을 한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참가한다.

경기는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정해진 홀에서 경기 후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천재지변과 부득이하게 경기 일정이 일부 중단되면 최소한 1일 18홀 참가한 선수 전원이 경기를 끝냈을 때 대회가 성립된다.

단체전 초등부와 중등부는 각 부 1개 팀을 2명으로 구성해 매일 2명의 타수를

합산한다. 고등부는 1개 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3명 중 적게 친 2명의 타수를 합산해 2일간 경기 후 가장 적은 타수를 가진 팀이 우승하게 된다. 개인전은 따로 시행하지 않고 단체전과 병행해 36홀 경기가 끝난 후 타수가 제일 적은 선수가 우승자가 된다.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미래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골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동아제약과 SBS골프채널이 2005년부터 14년째 주최하고 있는 대회이다. 매년 국내 골프 꿈나무들이 꼭 참가하고 싶은 대회 중의 하나로, 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오늘의 날씨

5월 9일

음력 : 3월 24일

수도권 날씨

21~1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7/20, 동두천 8/22, 가평 7/20, 양평 8/21, 평택 9/21, 수원 10/20, 용인 10/20, 인천 11/18, 서울 10/21, 파주 7/21, 백령도 9/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승을 거둔 박성현(사진)이 세계랭킹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박인비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평산산(중국)과 렉시 톰프슨(미국)이 2, 3위를 지켰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 팀 승리에 기여했다.
- ▲ 김시우가 1년 전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이 대회 우승을 노린다.
- ▲ 빅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최지만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타율은 0.283에서 0.284로 소폭 올랐고, 팀은 5-3으로 승리했다.
- ▲ 김해림이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김지영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 ▲ 강경호가 8월 5일 미국에서 열리는 UFC 227에서 4연승에 도전한다.
- ▲ 수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 강원 FC가 중앙수비수 한용수를 영입했다.

한국관광 잠재 시장은 '영국' K-팝·DMZ에 매료된 英 젊은이

관광공사 보고서

방한 의향 노년층보다 높아

방문 비율 日 1/3 수준 그쳐

“영국 젊은층에 홍보 강화해야”

한국관광공사가 유럽으로의 다변화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잠재력 높은 시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인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젊은층은 첨단 기술과 K-팝 등 덕분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관광객 급감 후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영국 관광시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영국 현지 여행업자·소비자 인터뷰, 현지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국내 영국인 관광객 전문 여행업자 및 주한 영국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예상외로 한국이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우선 방한 비율은 일본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특히 관광자원의 인지도 및 매력도가 일본보다 약하면서 비용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인식돼 방문 요인이 약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에서는 뚜렷한 이미지 때문이라기보다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여서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북한 이슈에 대한 불안감도 큰 편이었다.



지난 3일 마산항을 통해 영국선사 크루즈선 칼레도니아 스카이(Caledonia Sky)호로 입항한 영국, 호주 국적 외국인 관광객들이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젊은층에서는 첨단 기술, K-팝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향후 방한 의향도 59%로 노년층(53%)에 비해 높았다.

영국 현지 여행업계는 한국에 비무장지대(DMZ), 산, 사찰, 첨단 기술 등 영국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한국 체류 영국인들은 한국의 역동적이고 안전한 나이트라이프가 젊은층에 크게 매력적이라고 봤다.

영국 OB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에 삼성, 엘지 통신 쪽과 전자기기, IT기술도

발달돼 있고, 이 쪽을 특화시킬수록 젊은층들은 확실히 방한 의향이 높아질 것 같아요”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공사는 영국 외에도 호주와 인도시장을도 조사했다. 호주 역시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 등에 비해 낮았으나 젊은층에서는 선호도가 높았다.

인도는 한국 관광시장이 가족여행을 중심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인도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국 시장과 유럽시장 대상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2017~2018 한영상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특별캠페인을 추진, 방한 관광 홍보를 강화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서울시, 여름철에도 미세먼지 상시 대응

2018 여름철 종합대책

쪽방민 등 폭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우대비 대중교통 특별수송책 마련

서울시가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감염병, 식중독과 같은 안전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내놨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기질 정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크게 폭염·수방·안전·보건 4개 분야로 나뉜다. 폭염 대책으로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6명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쪽방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폭염 피해복구 등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

노인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3234곳에서 운영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 특보 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수방 대책으로 시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등 방재시설을 정비한다.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와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 시설을 확충해 피해를 예방한다.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공공건물과 학교 등 965곳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구호용 텐트 1000동을 지원한다.

폭우를 대비해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한다. 출·퇴근시간대와 막차시간을 재난 단계별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연장·증회 운행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서울시 안전정보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속보와 날씨정보, 유사시 시민행동요령 등을 제공한다.

안전대책으로 시는 숙박시설과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달 말까지 호텔 등 숙박시설 약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사고를 방지한다.

도로합몰 등 파손 빈발구간을 조사해 노후·균열 등 포장 불량지역을 정비, 포트홀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휴가철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한강공원의 인명사고 취약시설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보건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비한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에는 오존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오존 경보 발령·해제와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한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여름철 급성 감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방역요원이 병원과 학교 등에서 24시간 감시한다.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유충 구제활동을 벌인다.

/김현정 기자 hki1@

서울서 ‘내 집 마련 꿈’, 9년 연봉 꼬박 모아야

서울시-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주거비 부담 서초구 1위

서울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8.8배로 9년 치 연봉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8일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8.8배로 전국 5.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에서 20.8배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8.3배, 용산구 13.1배 순이었다. 서초구에서는 21년 치 연봉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아울러 시내 거주하는 가구의 71.3%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구구의 49.6%가 부담된다고 답한 반면, 임차가구의 83.3%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점유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은 12.7%였다. 동북권에서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42.9%로 전국 57.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도봉구(60.2%), 노원구(51.1%), 양천구(50.5%)에서 자가 점유 비율이 높았다. 노인가구의 63.2%, 청년가구의 19.1%가 자가 가구였다.

지난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서울이 47.9%로 전국 60.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월세가구의 비중은 청년가구, 1인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균 거주기간은 서울이 6.5년으로 전국 8.0년에 비해 짧았다. 자가구구는 평균 10년, 임차가구는 평균 4년동안 같은 주택에 거주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73.7%가 지난 2010년 이후 이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사 횟수는 4.1회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서울이 76.8%로 전국 82.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노인가구(83.3%)는 청년가구(68.3%)에 비해 주택 보유 필요성을 높게 봤다. /김현정 기자

SH 향동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1610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610세대를 공급한다. SH공사는 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공급되는 물량은 구로구 향동지구 3·8단지 822가구와 강일지구 등 27개 지구 잔여공가 788가구 등 총 1610가구이다.

신규 향동지구는 신혼부부에 243세대, 주거약자에 100세대,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비정규직·중소기업 재직자·노부모양자 등에게 255세대를 우선 공급

한다. 이외에 향동지구 개발 철거세입자에게 75세대, 일반 149세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향동지구의 경우 39㎡ 총 248세대, 49㎡ 206세대, 59㎡ 368세대며, 강일 등 잔여공가는 39㎡ 119세대, 49㎡ 208세대, 59㎡ 461세대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 2억44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향동지구 3단지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는 8일, 신청 접수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8일이며, 계약기간은 10월 12~16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오랜만에 파란 하늘 드러낸 서울 도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맑음’ 수준을 보인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 서 바라본 도심이 말끔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초등학생 대상 ‘한양도성 어린이탐험대’ 운영

서울 종로구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연을 학습하는 ‘한양도성 어린이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종로구 내 13개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학생은 1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 “여름방학 대학생 관공서 알바 찾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오는 17일까지 민원안내와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다. 모집 인원은 총

35명이다. 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1명을 우선 선발한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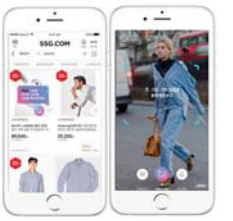


[산업]
삼성세탁기
세이프가드 뚫고
美시장 연속 1위
04



Life

[유통]
‘이미지 검색’
인공지능 품은
온라인쇼핑몰
11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에서 남쪽으로 10여 분을 걸어 내려오면 ‘양명문(讓名門)’이라는 현판이 걸린 한옥이 나온다. 한옥 대문을 열면 세종대왕의 큰형 양녕대군의 묘와 사당이 있는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만날 수 있다. 숙종 대왕은 1675년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이 아우 충녕대군(세종)에게 왕위를 사양한 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지덕사)을 세웠다. 원래 남대문 밖 도저동에 있던 사당은 1912년 묘역이 있는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지난 4월 27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해왔던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18년 만에 전면 개방했다. 지난 4일 찾은 양녕대군 이제 묘역은 산새 지저귀는 소리와 연못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무릉도원이었다.

풍류 즐기던 양녕대군 묘, 도심 한복판 무릉도원으로

되살아나는 서울

장승배기역 양녕대군 이제 묘역

문화재 보호로 출입 제한됐던 묘역 18년 만에 시민 위한 공간으로 개방 후적벽부 새겨진 비석 볼 수 있어 출입금지 구역 많아 관람 제약도

◆마을의 문화유산... 주민 쉼터로

양녕대군 이제 묘역은 동작구 상도동에 1만5281㎡ 규모로 조성됐다. ‘명예를 사양한다’는 뜻을 가진 양명문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갈래로 나뉜 돌길이 보인다. 왼쪽으로 가면 정원이, 가운데로 올라가면 양녕대군 묘역이, 오른쪽으로 가면 사당이 나온다.

왼쪽 돌길을 따라 올라가면 눈앞에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정원에는 5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오석으로 만들어진 비석에는 묘역 성역화 역사, 양녕대군이 지은 한시, 대군이 초서체로 쓴 후적벽부 등이 새겨져 있었다.

상도동 주민인 장영자(62) 씨는 “당대 명필 가담게 서체에서 강한 힘이 느껴진다”며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씨는 “동네에 숨겨져 있던 문화유산을 영영 못 보고 지나칠 뻔 했다”면서 “이제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밝게 웃었다.

동작구 상도4동에 사는 한명순(74) 씨는 “묘역을 주민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마음에 든다”며 “동네에 마땅히 산책할만한 곳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런 작은 공원이 생겨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이



재실(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도광재 역시 출입이 금지돼 들어갈 수 없다.



지난 4일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찾은 시민들이 대군이 초서체로 쓴 후적벽부가 새겨진 비석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양녕대군 이제 묘역 입구에는 ‘명예를 사양한다’는 뜻의 ‘양명문(讓名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용할 만한 공원 부지가 부족해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개방하게 되었다”면서 “문화행사를 진행해 주민들을 위한 휴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묘역에는 양녕대군과 부인 광산 김씨를 합장한 묘소가 있다. 묘소 앞에는 장명등과 묘비, 좌우로 2기씩 총 4기의 문인석이 세워져 있었다.

장명등은 묘 앞에 불을 밝히는 등으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사찰과 왕릉 앞에 세워 두는 석물이다. 능을 지키는 수호를 문

인석은 묘소 앞에서 내시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왕을 경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분당구 구미동에서 온 이효수(83) 씨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묘소에 와서 조상님을 직접 찾아뵙게 되어 기쁘다. 조선 왕조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일반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지역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당도 재실도 출입금지... “전면 개방 맞나요?” 묘소를 등지고 왼쪽으로 가면 지덕사라는

사당이 나온다. ‘지덕’이란 인격이 덕의 극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양녕이 동생 세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행적이 고대 중국 주나라의 태백과 같다는 의미에서 세조가 친히 명명했다.

사당에는 양녕대군과 부인 광산 김씨의 위패와 후적벽부 팔곡병풍 초서체 목각판, 승례문 현판 탁본, 지덕사기 등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들어갈 수 없었다.

이날 사당 앞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관광객이 “여기는 뭘데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이냐”고 따져 묻자 지덕사 관리자는 “거기는 아직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곳이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덕사 사당 내에 있는 서고와 창고인 제기고 뿐만 아니라 사당 오른쪽에 있는 재실(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도광재 역시 출입이 금지돼 들어갈 수 없었다.

중랑구 신내동에서 온 김관섭(81)씨는 “죽기 전에 사당 안에 있는 지덕사기를 두 눈으로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 없게 해놨다”며 아쉬워했다. 김씨는 “역사 교육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다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은 제사 때 이용되는 곳이라 개방하지 않았다”면서 “동작구에서 지덕사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동구 상일동에서 온 서창식(65)씨는 “입구 앞 표지석에 양녕대군 부인을 ‘광주 김씨’라고 잘못 적어놓았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